

濟州 流配 漢詩 研究

梁 淳 秘

I. 序 論

濟州島는 四面의 바다로 둘러싸인 이른바 絶海孤島이다. 그러므로 지난 날 朝鮮時代까지도 海로 最高刑을 받은 流刑因들이 유배 온 최악의 流謫地였다. 그것은 流配者들을 다룰 때 遠惡地配보다 島配를 더 重罪人視했던 점에서도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高麗 때 元에 점령된 후 100여년간 元·明 등 異民族의 流刑地였던 사실이 있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곧 元나라가 忠烈王 元년(1275) 4월에 도적 100여명과 同 3년(1277)에 罪人 73명을 제주도에 流配시켰던 일, 明나라가 禡王 14년(1388) 12월에 귀순한 元의 達達親王 등 80餘戶를 모두 제주도에 移住시켰으며, 그리고 恭讓王 4년(1392) 3월에 元의 梁王子孫 愛顔帖木兒 등을 제주도에 安置시켰던 일이 바로 그것이다.¹⁾

※ 이 論文은 1982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1) 『高麗史』 卷 28 “忠烈王元年夏四月元流盜賊百餘人于耽羅” “忠烈王三年丁丑五月戊戌元流罪人三十三人于耽羅”

“忠烈王三年丁丑八月庚辰元流罪人四十于耽羅”

卷 137 “辛禡十四年戊辰十二月帝遣前元院使喜山大鄉金麗普化等〈中略〉又傳聖旨云征北歸順來的達達親王等八十餘戶都要教他耽羅住去恁去高麗說知教差人那里淨便去處打落了房兒一同來回報於是遣典理判書李希椿于濟州修葺新舊可居房舍八十五所”

卷 46 “恭讓王四年壬申三月乙巳帝置前梁王子孫愛顔帖木兒四人于耽羅使與拍拍太子等完聚居住”

이렇게 異民族의 流刑地이기도 했던 제주도가 조선시대에 와서 島配地로 정착하였는데 한 때는 朝鮮 成宗 때 盜犯者를 제주에 定役 流配하였던 바 牛馬盜殺과 馬賊事件이 빈발하였으므로 盜犯者의 濟州島 流配를 금지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濟州島는 地理的으로 섬이라는 점에서 高麗朝 後期부터 朝鮮朝 末期까지 流配地로서 象徴的이며 代表的인 地域이 되어 왔다.

朝鮮時代に 제주도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은 위로는 王族·政治人·官吏·學者들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京中の 犯罪者와 북방 국경 지방의 越境犯人에 이르기까지 각종·각양의 罪를 범하였던 사람들이며 그 수에 있어서도 실로 많았던 것이다.

그 중 燕山君 때의 金舜孫·洪裕孫, 中宗 때의 金淨·李世蕃·宋麟壽, 明宗 때의 僧普雨, 宣祖 때의 蘇德裕, 光海君 때의 光山府夫人 盧氏와 鄭蘊·宋象仁·李翼, 仁祖 때의 廢主光海君·李健·金尙憲·仁城君, 孝宗 때의 申命基, 肅宗 때의 宋時烈·張希載·金鎮龜·金春澤, 景宗 때의 申鉉, 英祖 때의 恩彦君·恩信君·任徵夏·趙觀彬·李存中·權震應·任觀周·李眞儒·尹塾, 正祖 때의 趙貞喆, 憲宗 때의 金正喜 등등 當代의 高名한 流配人士가 例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權勢와 流配, 官爵과 流竄은 거의 표리관계에 있었다. 곧 流配는 官界에 나선 政治人에게 으레 따르게 마련이다.²⁾

黨爭이 심한 朝鮮朝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들 流配者들은 不遇한 流配生活을 그들의 소중한 創造的 空間으로 그리고 創作的 契機로 만들어 流配生活 동안에 流配地에서 겪은 사실의 直接的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을 文學으로 表白하였다. 따라서 流配를 素材로 한 작품, 流配地에서 지은 작품이 많으며, 流配生活은 곧 創作生活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쓴 文人들도 있다.

우리의 國文學을 史的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朝鮮朝의 경우 一次的으로 比重을 두고 보게 되는 문제는 黨爭이 빚어낸 流配文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朝鮮朝의 사회가 士大夫 階層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것과 당쟁이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엄연한 역사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朝鮮朝 500년사는 한마디로 黨爭史였다고 結論지을 수 있을 만큼 朝鮮朝 519년의 역사 중 340년간에 걸쳐 당쟁이 점철되었다. 상당한 流配文學은 바로 이 朝鮮時代의 政治的, 時代的 狀況의 主潮인 黨爭의 소산이요, 그 반영이었다.

流配文學이란 流刑囚가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그대로 文學化한 작품을 流配文學이라 그 概念을 규정할

2) 鄭炳昱 「孤山 尹善道」 (『文學思想』, 1974. 1 pp. 393~300) “우리의 역사상에서 손꼽히는 지성인으로서 그 인물이 「政治人+學者+文學家」가 아닌 사람이 드물고, 또한 그들의 생활이 「出仕+流配+隱遁」이라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수 있다. 3) 특히 朝鮮朝의 流配文學은 주로 政治的, 時代的 狀況인 當쟁에 직면하여 패배한 자가 政敵에게는 물론 君王에게 忌諱·排斥을 당해 梟園罪人으로 流配地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精神的 狀況을 그대로 文學化한 작품을 말할 수 있다. 4) 이에 濟州流配文學이란 朝鮮朝의 時代的·政治的 狀況으로 말미암아 流刑 囚로서 遠惡地인 濟州島에 유배되어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그대로 文學化한 작품을 濟州 流配文學이라고 그 概念을 규정할 수 있다.

朝鮮朝 流配文學에 나타난 主流的 內容은 身上歎, 戀君, 哀訴, 忠念, 隱遁逃避, 慨世, 自然愛,

- 3) 이제 종래 流配文學을 정의한 것을 보면,
 첫째, 流配文學의 성립에 관한 설명; 趙潤濟 「國文學에서 본 生活觀」 (『國文學概說』 서울; 東國文化社, 1956. pp. 366 ~ 367).
 둘째, 流配文學의 原論的 概念規定; 張德順 「流配歌辭試考」 (『國文學通論』 서울; 新丘文化社, 1960, p 361).
 셋째, 流配詩歌의 概念規定; 徐東鈇 「流配文學考」 (建國大 『文湖』 創刊號, 1960. p. 18.)
 넷째, 流配文學을 間接的인 流配文學과 直接的인 流配文學으로 区分한 概念規定; 丁益燮 「流配文學小考」 (『无涯 梁桂東 博士 華誕記念論文集』 서울; 東國大學校, 1964. p. 531). 이 丁益燮교수의 說을 바탕으로 한 敷衍的 說明; 文稷植 「流配歌辭의 內容的 考察」 (全南大 『語文論集』 5集 1969. p 203)
 다섯째, 流配文學의 成立을 文學 背景的인 측면에서의 言及; 全永琪 「流配文學論」 (『現代文學』 통권 147 권 서울; 現代文學社, 1967. p. 270).
 여섯째, 流配文學의 發生 動機와 流配文學을 党争의 產物로 본 概念規定; 趙成桓 「國文學과 黨所關係」 (郡山教育大 『論文集』 7집. 1974. p. 133).
 일곱째, 流配歌辭의 概念規定;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대구; 螢雪出版社, 1974.) p. 17 이 李相寶교수의 說을 바탕으로 한 敷衍的 說明; 尹亨德 『萬言詞研究』 (碩論 檀國大大學院. 1966) p. 172.
 여덟째, 流配文學의 原論的 概念規定에 따라 流配文學을 純粹 流配文學과 廣義 流配文學으로 兩分한 說明; 秦東赫 『李世輔 時調研究』 (서울; 集文堂. 1983) p. 162
- 4) 拙稿 『李朝流配文學研究』 (碩論, 高麗大大學院, 1969) pp. 6 ~ 7.
 筆者는 이 流配文學을 純流配文學과 準流配文學으로 나누어 概念 規定을 한 바 있다. 곧 ① 流配作家가 流配作品을 창작한 사실이 확실하고, 그 창작연대도 流配時에 지은 것으로 確實한 것과 ② 流配당한 것이 확실하고 流配作品으로서 그 창작연대가 未詳이나 내용이 流配的인 성격을 띤 작품을 純流配文學으로 그 概念을 규정짓는다.
 그리고 ① 작가·창작연대가 未詳이지만 내용이 유배적 성격을 띤 작품인 것과 ② 유배를 겪은 작가의 작품으로서 그 내용이 流配生活이 끝난 직후 세상에 대한 염세를 일으켜 心的 狀況으로 연속된 유배적 분위기의 성격을 띤 작품으로 창작연대가 확실하거나 未詳인 작품을 準流配文學으로 그 概念을 규정짓는다. (拙稿 「前揭書」 pp. 10 ~ 11)
 이 筆者의 概念 規定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論文은 池鍾玉님의 「流配文學研究序說」 (木浦大 『論文集』 제 1집. 1979. p. 40)에서 볼 수 있다.

警世, 聖恩, 懷古, 人倫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⁵⁾ 本稿에서는 濟州流配文學 중 流配漢詩만을 대상으로 하여⁶⁾ 그것이 지니고 있는 主流的 內容과 國文學史的 位置를 설정해 봄이 本研究의 意圖이다.

II. 流配文學의 背景

朝鮮時代의 流配는 그 발생이 주로 政治的 狀況인 黨쟁과 정치에 기인한 것이 지배적이며, 정치를 통해 參政하고 집권한 자가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行刑의 所産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流配文學의 形成·背景이 되는 刑律制度上的 流配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刑 律 制 度

流刑은 重罪를 범한 자에게 死刑까지는 科하지 않고 遠隔地로 流配를 보내어 終身토록 다시 歸還치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⁷⁾ 따라서 일반적 流刑의 본질은 自由刑과 비슷하나 死刑의 換刑으로 대치되는 死刑 완화법으로 이용되는데 있다.⁸⁾ 流刑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분 國事犯으로서 役刑 1년 이상의 律에 저촉되는 자에게 과해졌다.

이러한 流刑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史料에 의하면 流刑이 이미 三國時代부터 있었던 것으로⁹⁾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三國時代의 流刑은 隋·唐의 제도에 영향을 입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高麗時代에 와서는 唐律을 모방하여 死·流·徒·杖·笞 등의 五刑을 高麗律로 확정하였다. 高麗朝 流刑의 기준은 流配地의 遠近·距離에 따라 그 輕重을 책정하여 2千里·2千5百里·3千里의 세 등급으로 구분한 바가 있는데 流2千里는 杖17·징역1년·贖銅80斤, 流2千5百

5) 拙稿「前揭書」p. 260.

6) 本稿에서는 가장 유배적 성격이 짙은 中宗 때의 金淨의 漢詩 11수, 光海君 때의 鄭蘊의 漢詩 13수, 李瀛의 漢詩 3수, 仁祖 때의 光海君의 漢詩 2수, 肅宗 때의 宋時烈的 漢詩 3수·金春澤의 漢詩 11수, 景宗 때의 申鉉의 漢詩 1수, 英祖 때의 趙觀彬의 漢詩 10수·任觀周의 漢詩 3수, 正祖 때의 趙貞喆의 漢詩 25수, 憲宗 때의 金正喜의 漢詩 18수 등 각 시대에 따라 유배된 11명의 유배인의 漢詩 100수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7) 『大明律直解』名列律 五刑名義

8) 法文社編『法律學辭典』(서울; 法文社, 1969) p. 701.

9) 『北史』百濟條“其刑罰 反逆退軍及 殺人者斬 盜者流”

『三國史記』新羅本紀 興德王 3年條“漢山州 羸川人妖人 自言有速富之術 衆人頗感之 王聞之曰 執左以或衆左刑之 先王之法也 投界其人遠島”

리는 杖 18 · 징역 1 년 · 贖銅 90 斤, 流 3 千里는 杖 20 · 징역 1 년 · 贖銅 100 斤 등등으로 10) 贖刑 制를 인정하였다.

朝鮮朝에 와서 太祖가 卽位 教書에서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刑 집행 관원은 무릇 公的 · 私的 인 법법은 반드시 大明律에 의거해야 한다고 11) 선포하였다. 朝鮮朝는 建國初 高麗律과 같이 五 刑을 택하고, 大明律에 준한 刑罰을 행하기 위하여 따로 실정에 알맞게 徒刑 · 流刑贖刑 등을 정하였고 明律에 규정된 里數는 朝鮮의 里數로 계산하여 贖錢의 일부를 감하였다.

朝鮮朝의 流刑은 반드시 杖刑을 併科했고, 流 1 千里 · 杖 1 百, 流 2 千 5 百里 · 杖 1 百, 流 3 千里 · 杖 1 百 등 세 등급이 있고 每 5 百里마다 刑一等이 加減되었다. 12) 그런데 이 규정대로 시행하기에는 불합리하여 地理上 流 3 千里의 刑 執行은 불가능하므로 유형수의 居處를 중심으로 流刑의 등급에 따라 일정한 지방을 지정하여 流配를 보내는 등 실정에 맞도록 처리하였다. 13)

流 3 千里 등의 刑規定은 국토가 중국에 비해 좁은 朝鮮朝에서는 이것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世宗 12 年 (1430) 潤 12 월에 刑曹의 上奏에 따라 유배지방을 정한 바가 있었다.

京城 · 京畿 左右道 留後司에서 3 千里로 유배할 자는 慶尙 · 全羅 · 平安 · 咸吉道 안에서 30 息 밖에 있는 海邊의 여러 고을로, 2 千 5 百里는 慶尙 · 全羅 · 平安 · 咸吉道 안에서 25 息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2 千里는 慶尙 · 全羅 · 平安 · 咸吉道 안에, 20 息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유배 지방을 정하였다. 14)

그 밖에 黃海道 · 平安道 · 忠淸道 · 全羅道 · 慶尙道 · 咸吉道 · 江原道 등지에서 각각 3 천 리 · 2 천 5 백 리 · 2 천 리 등 해당 道를 중심으로 유배지방을 정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大典會通』에 의하면 濟州三邑人 (濟州 · 大靜 · 旌義) 으로서 流罪를 범한 자는 三邑 안에서 相互 定配케 하고 濟州 三邑 사람으로서 도망하거나 허가없이 타지방으로 이주한 자는 罪를 주고 原籍에 되

10) 『高麗史』 卷 38 刑法志 流刑條

11) 『太祖實錄』 卷 1, 元年 壬申 7 月乙巳條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心該大明律”

12) 『大明律直解』 名例律 五刑名義 “自二千里 二千五百里 至三千里 爲三等 每五百里 爲一等 加減”

13) 그 밖에 流 3 千里를 曲行하여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正祖 卽位年 10 월 6 일에 義禁府에서 啓하기를 機張縣으로 유배되는 3 千里 流刑囚 金若行을 3 千里 流配의 전례에 따라서 다시 謫所를 정하여 曲行토록 하명하였으니, 王都에서 機張까지 970 里이고 機張부터 江原道 平海郡까지, 平海郡에서 咸鏡道 端川府까지의 거리를 합하면 3 千里가 되니 曲行의 과정을 계산하여 端川府로 유배 보내기를 청한 바 王이 이를 윤허하고 하교하여 이르기를 900 里 땅으로 유배시킨 것은 流 3 千里의 뜻이 없으므로 曲行케 하여 流刑囚 金若行으로 하여금 조정에 流 3 千里의 유형이 엄격히 실시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또 曲行할 때에 고통을 받게 함이라고 예가 있다. (『日省錄』 卷 43 正宗 卽位年 丙申 10 月 6 日條)

14) 『世宗實錄』 卷 50. 12 年 庚戌 潤 12 月 11 日條 “京城留後司 京畿三千里 則慶尙 · 全羅 · 平安 · 咸吉道內 三十息外 濱海各官, 二千五里 則慶尙 · 全羅 · 平安 · 咸吉道內 二十五外各官, 二千里 則慶尙 · 全羅 · 平安 · 咸吉道內 二十息外各官”

돌리는 한편 이런 제주인을 감싸준 자는 杖1百에 3千里 먼 곳으로 流配케 한다¹⁵⁾는 규정이 있어 濟州人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었는가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流配地의 원칙은 수립했지만 정치범이나 특수 犯罪人에 대한 流配地 選定은 王府의 政策的인 배려에 의해 일부 예외가 인정되었다.

조선조의 유배형기는 원칙적으로 無期終身刑이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단죄가 된 유배자는 君王의 사면령과 政治 情勢의 변동이 없는 한 한평생 유배지에서 歸鄉할 수 없는 것이 상례다. 조선조의 사면제도는 당과적·세도적 정치에 좌우되어 극도로 情實的·政略的으로 남용되어져 그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치 못하였다.¹⁶⁾

流刑에는 遷徙·付處·安置 등의 세가지가 있었다. 遷徙는 “遷離鄉土 一千里外”로써 犯罪人을 고향에서 천리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이다. 遷徙는 侵害的 性格을 가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있다. 遷徙에는 全家徙邊이란 것이 있는데 流配者와 함께 멀리僻地로 강제 移住시키는 가혹한 刑罪이다. 곧 罪는 三族에 미친다는 三族連座刑·家族連座刑의 일종이어서 中宗 4년(1509)부터 실시되었지만 형벌이 가중하다 하여 그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付處는 中途付處의 준말인데 이것은 官員에게 과해진 형벌의 일종이다. 유배자에게 그의 정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지내게 하는데 유배지 縣官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措置를 맡긴 형벌이다. 付處는 儒生에게 대해서도 官員에 준하여 적용되었는데 中宗 때 尹衡을 外方에 付處시킨 바 있고,¹⁷⁾ 이 付處의 加重罪로 奴婢가 되기도 한다.¹⁸⁾

安置에는 本鄉安置·絕島安置·圍籬安置 등의 세가지가 있다. 本鄉安置란 安置刑에 있어서도 가장 죄질이 가벼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죄인의 고향에 幽閉시키는 것이다. 太祖 元年(1392) 7월의 敎書에서 고려 말기에 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 처음으로 禍端을 일으킨 禹玄寶 등 56명에게 5등급으로 나누어서 형을 내렸는데 그 중 本鄉安置는 가장 경미한 형에 속하는 것이었다.¹⁹⁾

絕島安置는 流刑 중 가장 가혹한 隔離 措置인데 無人島나 그 밖에 島嶼에 安置시키는 형벌이다. 이른바 중죄인에 대한 應懲 措置인데, 극악한 경우 毒蛇 毒蟲이 棲息하는 곳에 安置시키는

15) 『大典會通』 刑典

16) 赦免이 내리면 10惡(①謀反 ②謀大逆 ③謀背 ④惡逆 ⑤不道 ⑥大不敬 ⑦不孝 ⑧不睦 ⑨不義 ⑩內亂)의 범죄와 大罪(①謀叛 ②強盜 ③殺人 ④強姦 ⑤脅騙)의 범죄를 除外하고는 전국적으로 기결·미결수는 모두 석방되어지는 게 관례였으나 정치적 유배자의 경우는 정략적으로 남용되어져 왔다.

17) 『中宗實錄』 卷11 5年庚戌 4月7日條 “上命 尹衡外方付處”

18) 『成宗實錄』 卷246 21年庚戌 10月條

19) 『太祖實錄』 卷1 元年壬申 7月乙巳條 “五十六人在前之季結黨謀亂…各於圍籬安置”

경우가 있다. 그 예로 安肇煥의 경우 楸子島에서 그런 고초를 겪었음을 「萬言詞」에서 表白하고 있다. 그러므로 絕島安置는 「大典通編」의 刑典에도 絕島에 官守가 없는 곳에는 죄인의 유배지로 편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黑山島와 같은 극악한 지역에는 國王의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유배시켜서는 아니되며 濟州의 三邑에는 罪名이 특히 중한 자 이외는 流配시켜선 안 된다 했다.²⁰⁾

圍籬安置란 죄인이 謫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幽閉시키는 것인데 重軟禁에 해당하는 형벌로 중죄인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탕자나무가 전라도 지방과 제주 지방에 많았으므로 이 형을 받은 사람은 대개 전라도의 연안 해안의 섬과 濟州島로 많이 갔다. 대체로 유배자는 그의 가족과 함께 동반할 것을 원한다면 허락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圍籬安置만은 大明律에서는 가족과의 同居를 허락하였으나²¹⁾ 朝鮮朝에서는 “不可與家屬混處”라고 하여 허락치 않은 점에서 가장 가혹한 유형이었다. 政治的 流配者의 濟州島配는 모두가 圍籬安置였다. 受刑者는 發配에는 그 관직의 고하에 따라 호송자가 다르다. 金吾荐棘罪人과 正二品 이상의 高官이면 都事(義禁府의 從五品官)가 流配地까지 호송을 맡고, 그 이하의 죄인은 堂上書吏나 堂下羅將이 그 호송을 담당했다. 또 刑曹의 罪人으로 徒配 이상의 죄인으로 徒配 이상의 罪人이면 京驛子가 이를 압송해 가고 다음 驛吏에 인계하며 유배지까지 호송했다. 또 徒·流·付處·安置 등 유배당한 자는 刑曹에 기록하고 他司 및 外方에 流配당한 자도 刑曹에 기록해 후일 범죄인의 검거 자료로 삼았다.

京·外的 罪人이 流配地로 호송되면 관내의 道觀察使는 즉시 그 자의 罪名과 도착 일시를 기록하고 國王에게 상주했다. 그리하여 流配人의 감시 책임은 관내의 守令이 맡는다. 당시의 政權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유배된 자의 謫所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지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정상 참작으로 유배인이 王都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지는 수도 있었다. 前者를 ‘移配’²²⁾, 後者를 ‘量移’라고 한다.

流配地로 발배하는 도중 만약 생존시켜 두어서는 후환이 있다고 판정이 되는 자 또는 중죄인 등을 호송관리가 독살 또는 익사시켜 버리기도 했다. 그 예로 당쟁이 치열했을 때 朴泰輔는 流配 도중 죽었다고 하는데 앞의 수법과 같이 독살당한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이다.

조선조의 流配地 선정은 遠流와 島配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島配라고 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 책정되고 유배지나 謫所가 결정되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때 형편인 정치정세나 죄인의 신분

20) 『大典通編』 刑典 推斷

21) 『大明律直解』 名例律 五刑名義 “凡犯流者 妻妾從之 父祖子孫欲 隨者聽”

22) 곧 宋時烈이 제주에 유배된 후 井邑으로 移配된 것과, 仁祖 16년(1638) 4월 備邊司로부터 王에게 역적의 자식이 연령 미만이거나 연좌형에 처해져 남쪽에 유배되어 있지만, 이제는 성장했으므로 제주도에 가까운 珍島·長興 등지의 유배자처럼 다른 섬에 移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상주하자 王이 이를 승인한 바 있다. (『備邊司騰錄』 仁祖 16年 4月條)

차이와 최상의 경중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제주도에 유배된 유배인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그런 僻地에 流配당한 것보다 島配당한 것이 더 중죄인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조선조의 刑律制度에 缺陷이 있다기 보다 골육상잔의 黨爭에 이용되어진 면이 컸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유형중에 최악형인 絶島安置란 것도 조선조 封建國家의 權力的·政治的 秩序의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조선조가 遠配보다 島配를 더 중시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筆者가 『韓國人名大事典』에서 조선조 시대의 人名 중 700 명을 대상자료로²³⁾ 하여 조선조

23) 流配地 및 流配者數 分布

区分 道別	流配者 및 流配者數	流配 地計	流配 者計
京畿道	南陽3 城平1 抱川1 廣州1 積成1 楊州1 豐德1 通津1 喬洞1 龍仁1 高陽1 交河1 驪興1 開城1 陰竹1 長湍1 楊根1 利川2 安山1 永平1 陽城1 富平1 良才1 朔寧1 江華島5	25	32
平安北道	嘉山2 博川1 寧邊7 宣川6 江界9 碧潼8 朔州5 渭原1 楚山1 熙川2 義州6 定州2 昌城3 鉄山1 龜城2 郭山4 固城4 麟山1	18	65
平安南道	德川2 合浦1 咸從1 肅川2 順安1 江東1 江西1 孟山2 安州2 陽德2 祥原1 中和4	12	20
濟州道	濟州5 大靜34 旌義4 鹿島2 楸子島4	5	49
慶尙北道	慶山1 龍川2 寧州2 醴泉1 長鬐2 慶州1 長沙1 咸昌2 清河1 延日2 高靈1 安東1 永川1 善山5 永陽1 寧海9 迎日1 平海3 開寧2 尙州1 龍宮2 星州3 義城1 盈德3 順興1 仁同1 興海2 黃澗1 蔚山4 蔚珍2	30	60
慶尙南道	東萊5 晉州3 金海4 靈山1 清道1 咸安1 河東2 昌原3 泗川3 密陽1 宜寧1 梁山4 楊山1 機長5 昆陽4 蔚州1 晉陽1 南海15 西生浦1 巨濟島18	21	77
忠清北道	錦山3 忠州5 金山2 陰城1 鎮川2 提川1 文義2 槐山1 永同2 清州3 丹陽2 報恩2 沃川1	13	27
忠清南道	朽川1 恩律1 林川1 牙山5 公州5 稷山4 德山1 唐津1 洪州1 保寧1 結城1 定山1 懷德1 扶餘3 尼山1 禮山1 藍浦1	17	30
咸鏡北道	吉州5 會寧6 鏡城1 茂山2 穗城5 富寧4 慶源11 明川9 鍾城13	9	56
咸鏡南道	三水8 北青3 安邊2 慶興6 端川2 咸興1 德源2 永德1 泗水1 甲山13 洪原6 利城2	12	47

시대의 유배지 및 유배자 수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조선조시대의 유배지는 국내 245 개처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곧 王都를 제외한 韓半島 全域의 偏鄙地는 대체로 유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도별로 보면 全羅南道가 유배지 29 개처에 유배자 수 129 명으로 그 순위가 첫째에 속하고, 다음 慶尙南道가 유배지 21 개처에 유배자 수 77 명으로 그 순위가 둘째에 속하며, 平安北道가 유배지 18 개처에 유배자 수 65 명으로 그 순위가 셋째에 속하며 慶尙北道가 유배지 30 개처에 유배자 수 60 명으로 그 순위가 넷째에 속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유배지 제주도의 大靜縣에 流配된 자가 34 명으로 가장 많고 이를 근거로 濟州島의 大靜縣은 유배지로서의 대표 지역임과 金錫哲의 狀啓에 따른 정책적 유배지 임²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포통계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유배지는 북쪽 변방에 三水·甲山·鏡城·明川·穩城·慶源·朔州·江界·碧潼 등지와 남해안 島嶼地方에 南海·珍島·黑山島·古今島·智島·巨濟島·楸子島 등지에 散在하여 있으며, 또 濟州島에 속하는 최남단의 무인도인 鹿島가 유배지였음을 알 수 있다.

江原道	金城 2 淮陽 3 杆城 2 原州 4 江陵 1 寧越 3 伊川 2 通川 1 洪川 5 春州 1 江陰 2 春川 1 鉄原 2 橫城 2 狼川 2	15	33
黃海道	豐川 2 牛峰 1 白川 2 文化 1 平山 2 安岳 1 鳳山 1 兎山 1 龍因 1 載寧 2 延安 4 黃州 2 擁津 1 嶺南 1 新溪 1 平州 1	16	24
全羅北道	興陽 5 沃溝 2 萬頃 2 嶺島 3 礪山 2 全州 3 淳昌 1 扶安 7 珍山 1 益山 1 長水 1 木川 1 金提 3 興德 1 茂長 4 靈光 3 任實 2 南原 2 茂朱 3 臨岐 1 完山 1 高山 1 古郡山島 1	23	51
全羅南道	順天 6 箕佐島 1 黑山島 15 羅州 4 珍島 27 綾州 1 康津 11 新知島 2 珍原 1 西島 1 光州 1 荳子島 2 靈岩 7 長城 1 海南 4 長興 7 光陽 2 巨文島 1 求禮 1 樂安 1 南平 1 羅老島 1 同福 1 務安 4 寶城 1 智島 7 古今島 14 金甲 3 烏林 1	29	129
流配地總計	245	流配者數總計	700

①朝鮮朝의 流配地 및 流配者數 分布 統計를 作成함에 新丘文化社刊 『韓國人名大事典』에서 朝鮮時代의 人名 4,198 명 (文臣 3,472, 武臣 580, 僧侶 3 명)을 整理하여 流配地가 精確한 700 명을 그 對象資料로 삼았다. 이 統計에 나타난 것은 流配者의 一次 流配地만을 基礎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地名은 現在와 다르거나 없는 곳도 있음.

②流配地名의 權相老編 『韓國地名沿革考』를 參考함.

24) 『中宗實錄』卷 19. 8年癸酉 13月條 “京中犯罪定屬人應入濟州者首屬于此以實殘縣”

제주에 유배된 유배자의 受刑期間은 설정돼 있질 않아 유배자의 석방은 오로지 군왕의 관용과 국정환국에 따른 사면이나 量移가 없는 한 유배지에서 유배생활을 종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유배지에 유배자의 후손이 대대로 살고 있는 곳도 있다. 제주도내 姓氏 가운데 74姓을 중심으로 제주도 入島狀況을 조사해 본 결과 입도 원인이 유배와 관계가 있는 姓氏가 10姓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⁵⁾

이러한 流刑制度는 建陽元년(1896) 종래의 里程制에 의한 제도상의 미비한 것을 刑期制로 終身·15년·10년·7년·5년의 형기로 개정되었다.

2. 濟州島의 環境

濟州島가 朝鮮朝 때 流配地로서 대표적인 지역이었으므로 우선 濟州島의 環境인 自然的 環境과 歷史的 環境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文學은 선택된 環境을 반영하고 作家는 環境의 선택에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1) 自然的 環境

濟州島는 韓半島 西南部 海上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북쪽으로 木浦와의 거리는 88 마일, 동북쪽으로 釜山과의 거리는 169 마일, 동쪽으로 日本의 對馬島와의 거리는 150 마일, 서쪽으로 黃海를 사이에 두고 東中國을 바라보고 있다. 섬의 주위 길이는 254 km, 면적 1,820 km², 동서길이 80 km, 남북길이 40 km가 된다.

濟州島는 섬의 자연적, 지리적 분류에 있어 洋島(Ocean island)에 속하는 火半島로서 韓國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本土와는 隔離性을 內包하고 아울러 일종의 孤立性을 띠고 있으며 本島는 8개의 有人島와 34개의 無人島가 本島에 포함된다.²⁶⁾ 이른바 絕海上의 環海孤島이다.

濟州島의 地理的 位置가 이러하므로 上代 社會의 原住民은 大陸과 여러 지방에서 流入되어 온 여러 種族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곧 이것은 北方系列의 大陸的 要素를 지닌 人種과 南方系列의 海岸島嶼的 要素를 지닌 人種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主流가 되어 本島 原始文化의 性格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²⁷⁾

25) 濟州韓氏, 金海金氏(四尹派·三賢派), 密陽朴氏(糾正公派), 信川·谷山康氏, 古阜李氏, 江陵威氏, 豐川任氏(海隱公派), 仁同張氏(眞佳派), 陽川許氏, 慶州李氏 등 10 姓임.

26) 『島嶼誌』(內務部, 1973)

27) 『濟州道誌(上)』(濟州道, 1982), p.10.

本島는 남북보다 동서가 긴 타원형의 一大 火山島이고 火山 形態는 漢拏山의 높이 1,950 m를 主峯으로 극히 緩慢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아스피데式 火山으로 되어 있다. 섬의 원래 기반은 花崗岩이고 第3期에 분출한 粗面岩이 이를 덮고 있는 위에 다시 第4期에 玄武岩을 분출시켜 舊火山體를 뒤덮음으로써, 현재의 火山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그후 다시 玄武岩이 熔岩地帶를 貫入하여 360개의 側火山(오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高麗史』에 따르면 穆宗 5년(1002)과 同 10년(1007) 두번에 걸친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三多>의 하나인 ‘石多’가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 全島가 돌로 덮여 있어 <돌섬>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돌은 검고 多孔質인 玄武岩인 것으로 家屋의 벽이나 家屋 周邊의 돌 담장은 물론이고 전담과 전담의 경계선²⁸⁾ 墓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돌담으로 쌓여 있다.

이 밖에 日常生活에 필요한 <맷돌>·<돌화루>·<연자매>·<연모돌> 등과 洞里的 守護를 담당하는 <돌하르방> 등의 石器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쓰여 왔고 신앙화되어 왔으며 이 全島의 돌은 ‘風多’의 섬을 눌러 묵직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 濟州島의 文化가 섬세하지 못하고 묵중하고 화려하지 못하고 素朴한 것은 玄武岩의 表情인 것²⁹⁾으로 지적되고 있다.

漢拏山을 중심으로 섬의 分水嶺을 이루면서 동서로 뻗어 城板岳·御乘生岳 등에 의해 남북이 두 斜面으로 나누어지고 그 남과 북의 斜面에 따라 河川도 흐르나 이들 河川은 平常時에는 거의 물이 없는 乾川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飲料水·洗濯用水 등이 넉넉하지 못하다. 中宗 때에 流配 은 冲庵 金淨은 島民들이 食水가 없어서 非衛生的인 물을 마시는 것을 개탄하여 우물을 파기를 교도하여 이른바 「判書井」³⁰⁾이란 傳說을 남긴 것도 물이 귀한데서 연유한다.

氣候는 漢拏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近海는 暖流와 몬순의 영향으로 溫和한 海洋性 氣候를 이루고 있다. 이런 氣候에 따라 島民의 氣質·言語·民俗·文化 등에도 약간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앞서 말한바 本島의 用水 부족은 衣·食·住에 이르는 모든 文化的 現象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本島에서는 韓民族의 白衣民族으로서 특징인 <흰옷>을 愛用하지 않고 勞動服이면서 日常 나들이 옷으로 <갈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물과 衣生活과의 관계로써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밖에 물과 食生活과의 관계에서 <물허벅>·<물구덕>·<물팡> 등의 日常 用具 등도 물과 관계가 깊은 것들이다.

28) 高麗 高宗 때 判官 金坵에 의해 耕地策墻이 이루어졌는데 그 효과는 ①防風 ②牛馬侵入의 방지 ③ 경작지의 확대 ④ 작업능률의 향상 ⑤ 세력있는 자의 토지 잠식 방식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濟州道(上)』 pp.61-62)

29) 梁重海 「文化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耽羅精神 探究세미나』 제주:濟州大學 耽羅研究所 1979. p.151)

30) 『冲庵先生集』尹鳳撰 「判書井記」 “島地蟲延瘡塾 水泉水多嘔泄病人 故先生即其居鑿斯井飲之……示皆知爲判書井 甚矣德之薰人”任觀周 「判書井志感詩并序」 참조.

本島의 地畧은 주로 火山 灰土로 농토가 매우 척박하였다. 地力이 나빠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극도로 적어 島民들은 대대로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島民의 主食은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리·조·콩·팥, 근래에 와서 고구마 등의 混食이 많았다. 颱風의 통로인 '風多'로 인해 災害와 凶作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島民의 食生活은 가난의 연속이었다. 배불리 먹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자시피 했다. “밭 한 판을 보태느니 보다 食口한 사람 더는 것이 낫다”는 濟州 俗談은 이러한 가난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³¹⁾

人家의 聚落은 일부 山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海岸線에 가까운 湧泉水의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고 있다. 海岸線은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곳곳에 玄武岩의 斷崖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 天然의 좋은 항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家屋은 海岸 부근에 있는데 '風多'의 고장이어서 가옥 자체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하게 되어 있는 초가는 띠로 덮여서 굽직한 빗줄로 바둑판 모양으로 단단히 묶고 있다. 이러한 家屋 構造는 氣候와 관계가 있는 일이다. 이런 家屋에 살고 있는 島民들은 주어진 氣候의 惡條件과 싸워서 극복하는 용기와 슬기를 타고 나면서부터 가지게 되고 있으며 주어진 環境을 克服해야만 산다는 점에서 濟州島의 文化는 화려하고 섬세한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견고하고 소박한 끈질긴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本島의 地勢는 조금만 날씨가 가물면 旱氣요, 조금만 비가 내려도 水災를 면치 못했었기에 농사는 凶作이 잦았다. 世宗 10년(1428) 朝廷에서 濟州島의 토지의 稅率을 조정할 때 本島의 三災가 논의되고 本島에 대해서는 免稅할 것을 여러 大臣들이 上奏한 바가 있다. 이 三災란 '風多災'·'水多災'·'旱多災'인 것이다. 이는 부정적인 면에서의 '濟州의 三多'라 하겠으나 이는 濟州島民들이 옛적부터 氣候의 惡條件과 부단히 싸워왔다는 산 증거가 된다.

濟州島는 光海君 때부터 1910년까지 凶年の 횟수가 근 70회나 있었다. 光海君 2년(1610)엔 “大風水年荒人多飢”³²⁾라 하였고, 肅宗 37년(1711)에는 “大風雨平地域成川新村里人家七八區 漂沒”³³⁾ 하였던 큰 風水害가 있었고, 同王 41년(1715)까지 연달아 強風 및 旱災·豪雨로 인하여 凶年이 들어 百穀이 絕種되어 농민의 生活相은 貧寒에 몹시 찌들었고, 英祖 40년(1764)과 41년(1765)에는 大凶年이 일어나 島民이 萬여명이나 기근에 아사자가 속출하여 농민의 生活상은 비참이 극에 달했다. 이 가운데도 正祖 18년 甲寅(1794)년 凶年은 소위 “甲寅年 凶年”이라 해서 도민들에 널리 알려져 있어 凶年하면 반드시 회자하는 民譚이다. 高

31) 前註 27) p.232

32) 金錫翼 『耽羅紀年』 卷2 世宗 10年條 “時朝議 定本 島稅 總大臣 筵奏曰 此島地勢 山高多風 谷深瀑多水災 土薄多旱災 三災並侵 年必多歎 苦責納稅 民無以生 王從之遂寢”

33) 上揭書 卷2 光海君 2年條

34) 上揭書 卷3 肅宗 37年 秋8月條

宗 4년(1867)부터 1906년까지 凶年이 연속되었고 특히 高宗 23년(1886)에 “夏六月癘疫大熾 死者數萬人 秋七月大雨平地成川 漂流人家及塚 南水口虹門自毀”³⁵⁾하는 일이 있었으며 同王 31년(1894)에 큰 가뭄에 재해가 극심하여 島民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濟州는 멀리 大海 가운데 있으며 그 파도는 다른 바다 가운데도 몹시 사납고 거칠다. 바다는 중요한 생활의 현상이었다. 그 거칠은 바다와 싸워온 島民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 예로 世宗 26년(1444)에서 宣祖 9년(1576)간에 23회 270여명의 島民들이 漂流한 사건을 들 수 있다.³⁶⁾

바다를 둘러싼 濟州島 海女의 생활도 여간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肅宗 15년(1689)에 83세의 고령으로 流配된 宋時烈은 海女의 괴로움을 “목숨을 무릅쓰고 백길 물 속으로 들어가 무서운 물고기와 전복을 캐는데 이로우면 한 두 개 얻을 수 있거니와 불리하면 빈 손으로 나오게 되며 더욱 불리하면 영영 바닷물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니, 仁者는 두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⁷⁾고 하였다. 곧 濟州島의 ‘女多’는 남자들은 바다에 나아가 목숨을 잃어 버리는 자가 많은 데서 온 말인 것 같다.³⁸⁾

한편 大小 官員의 서울과의 왕래는 물론 流配者의 流配 海路는 風候不順하고 거친 파도로 생사간의 어려움이 컸었다. 禾北鎭 浦口에 있었던 海神祠³⁹⁾는 海路의 험난함을 말해주고 있는 遺跡인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바와 같이 濟州島는 망망대해 중의 孤島이며, 가혹한 환경의 섬이었기 때문에 朝鮮朝의 重罪人을 다스리기 위한 대표적인 流配地가 되었던 것이다.

2) 歷史的 環境

濟州島는 周圍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環海性과 本土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隔絶性과 土地가 협소하다는 狹小性 등의 島嶼의 特性을 가진 地域이다.⁴⁰⁾ 그러기 때문에 本土와 杜絶·孤立 내지는 隔絶性 때문에 自給生活이 강제되어 社會는 停滯하고 傳統的 文化가 강하게 殘存하는 後進性을 나타내기도 한다.

35) 上揭書 卷3 高宗 23年 夏6月, 秋7月條

36) 『濟州道誌(上)』 pp.167-169 참조. 金尙憲 『南樓錄』 “漂流沈沒 十居五六 州人不死於前.”

37) 金尙憲 『上揭書』 宋時烈 序文, 趙觀彬 『梅軒集』 卷3 「歎潛水女」란 시에서 海女의 비참한 생활을 불쌍히 여겨 그 情感을 표백하였다. 申光洙 『石北集』 「濟州潛水女歌」 참조.

38) 金尙憲 『上揭書』 宋時烈 序文 “是以島民男墓絕少而女墓多 寡妻而鰥夫多”

39) 金錫翼 『前揭書』 卷4, 純祖 20年條

40) 姜景燾 「古典의 島嶼性에 대한 考察」(濟州大 『논문집』 13집, 1981, p.203.)

濟州島의 原始社會·古代社會를 밝혀 낼 자료는 없다. 우리는 三姓神話를 비롯한 몇 개의 神話와 傳說, 그리고 土器·支石墓·石器·立石·住居址·洞窟·遺物 등 극히 한정된 자료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 자료만을 가지고 濟州島의 先民社會의 文化的 樣相을 추정할 수 없다.

三姓神話⁴¹⁾는 太初에는 人物이 없었고 漢拏山 北麓地 毛興穴에서 三神人이 湧出하니 長은 高乙那요, 次는 良乙那이고, 세째는 夫乙那이다. 이들은 皮衣肉食하며 수렵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東海에서 떠오르는 紫泥로 봉한 木函을 발견하고 세 처녀를 맞아들여 여러 망아지 및 五穀 種子를 얻고 一都·二都·三都의 肥沃한 토지를 선정하여 五穀을 파종하고 망아지를 양육했다는 濟州島 三姓 先民社會의 農耕文化를 그대로 묘사한 유일한 文獻傳說이다. 이것이 文獻으로 기술되어 정착되어지는 단계에서 상당히 變形되었을 것임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三姓神話는 定着되었던 당시의 思考方式을 지배했던 儒敎主義 思想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濟州島의 先民社會가 平和를 愛護하고 相助하고 協同하는 濟州島의 傳統의인 思想이 반영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애초에 濟州島는 新羅 등 三國과 교류를 할 때 附庸國으로 결코 어느 治下의 郡·縣이 아니었다. 西紀 10 에기초에 後三國을 통일하여 高麗朝가 창건함에 耽羅의 星主 高自堅이 太子 末老를 高麗朝에 入朝케 하자 高麗 太祖는 新羅의 關係대로 星主·王子의 爵을 내려 濟州島를 한 개의 郡·縣으로 보지 않고 부용국으로 대접했다.

高麗의 內外政策이 強化·整備됨에 따라 本島는 肅宗 10 년(1105)에 高麗에 한 개 郡 곧 耽羅郡으로 편입되어 高麗 治下에 통치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늘 억압당하고 피탈되는 가렴주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島民들은 高麗朝의 忠順한 백성이 되기엔 한 때 저항감이 적지 않았다. 濟州島의 이러한 歷史的 事實은 濟州의 歷史的 環境이 自然的 環境 못지않게 가혹하였던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蒙古의 侵略으로 인해 三別抄가 濟州島에 들어 온 것을 계기로 蒙古의 耽羅 지배가 百여년이 나 있었거니와 이 1 세기 동안 耽羅는 高麗朝와 蒙古에 二重의 壓迫을 강요당하였던 것이며, 島民들은 이 이중적인 수탈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三別抄가 평정된 후 蒙古는 日本 정벌의 중요 병참기지로서 本島를 강점하고, 達魯花赤로서 直轄 統治케 하였다. 蒙古는 島民의 抗蒙을 危險視하여 島民을 본토로 추방하는가 하면⁴²⁾ 忠烈王 元년(1275)에 「濟州逃漏人物推刷都監」이란 관직을 두고 元(몽고)이 강제 출륙시킨 島民들을 찾아 도로 섬에 돌려 보내는 일을 했

41) 『瀛洲誌』(高麗末葉頃): 三姓神話는 地神族說에 속하고 三神人이 배필자인 三神女에 관한 설화는 外래설에 속하는 것이다. 三姓神話에 관한 문헌은 야 40여종이 있다. (『濟州道誌(上)』 pp.33-38)

42) 『東史綱目』“自逆賊之亂 元令島民陸居 而耽羅別屬於元” 『高麗史』世家 卷27 元宗 24年 2月條 “平三別抄後 濟州人物勿令出陸 依舊安業”

다. 이렇게 島民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취급을 당하였다.

元帝는 本島에 牧場을 두고 말을 飼育했고, 여기에 元의 중죄인을 流配보냈다. 本島가 다른 民族의 流配地로 되는 것은 바로 이 무렵부터이다.⁴³⁾ 元의 점령기에 상당수의 元나라 사람들이 濟州島에 移住하였는데, 아직도 本島에 蒙古의 風俗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러한 歷史的 狀況 때문이었고, 濟州島의 風俗이 本土와는 異色的으로 보인다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元은 濟州島를 高麗에 한 개 郡·縣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의 섬나라로 보고 있었다.⁴⁴⁾ 元의 東征 計劃에 島民들이 혹사당하고 유린당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本島가 忠烈王 때에 高麗朝에 返還되고 비로소 島名을 濟州로 고쳐졌다. 이에 濟州島는 高麗에 郡·縣으로서 稅賦를 부담하고 또 元의 朝貢國으로서 그 貢物을 운반하게 되었다. 이렇게 麗·元 兩國의 틈바구니에서 二重·三重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해 왔다. 그리고 元의 牧場 설치 후의 牧胡의 탄압도 적잖았다.

濟州 風俗에는 男子 15세 이상은 공 15말을 세공으로 바치고, 衙吏는 말 한 마리를 세공하면 副使와 判官이 나누어 갖는다는 폐습마저 있었는데 高宗 46년(1259)에 副使인 金之錫이 이를 革破한 바 있었다.⁴⁵⁾ 이는 바로 가림주구가 얼마나 가혹했던가를 말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毅宗 時代에 있어서의 농민 봉기와 明宗 16년(1186)의 반란, 神宗 5년(1200)의 領石·頒守 등의 반란은 島民들의 必然的인 몸부림의 한 단면이었다. 한편 倭寇의 침범도 島民을 괴롭혀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忠惠王 3년(1342)에 7百餘艘가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⁴⁶⁾

朝鮮朝에 들어와서 官弊도 흑심하였다. 世宗 때 金爲民·高得宗·睿宗 때 金勿, 中宗 때 金錫哲·李耘 등의 狀啓와 上疏들은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⁴⁷⁾

宣祖 34년(1601) 御使로 濟州에 왔던 金尙憲이 儒生 한 사람에게 이 곳 사정을 묻자 그 儒生이 “封送馬之弊”⁴⁸⁾ 등을 지적한 바가 있다. 島民의 고통을 現地에서 들은 淸陰은 “何時死去待負此苦”라는 표현으로 濟州島民의 어려움을 표백하였다. 淸陰은 濟州島에 파견되는 守令에는 武官들이 많았고, 그들은 자신의 弊端이 王府에 알려질까 염려하여 儒生들의 出陸을 갖은

43) 前註 1) 참조

44) 『元史』 耽羅傳 “耽羅高麗與國也”

45) 李元鎮 『耽羅志』 名宦條 金之錫: “高宗朝 爲副使 州俗 男年十五以上 歲貢豆一斛 衙吏歲貢馬一匹 副使判官分受之 之錫到州 日即蠲之 政淸如水 民懷其德 州人曰 前有世封 後有之錫”

46) 金錫翼 『前揭書』 忠惠王 2年條 “二年倭寇南鄙 明年以七百餘艘來侵”

47) 『濟州道誌(上)』 pp.191 ~ 204. 참조

48) 金尙憲 『前揭書』 卷4 宣祖 34年 11月 18日條

수단으로 막았다⁴⁹⁾고 기록하기도 했다.

朝鮮朝는 國役 등 부담자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戶籍·號牌法 등을 실시하여 賦役을 피하기 위하여 戶口의 등록없이 移徙·流離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世宗 17년 耕作地가 一萬結 미만인데 人口는 6만여명이 넘어 飢饉現象이 자주 생기게 되므로 無田業良人과 私賤의 出陸을 허용하고 있었다.⁵⁰⁾ 그러나 成宗 초(1470)부터 仁祖 때(1642)까지 약 150년간 本島의 畝주린 자가 島外各處에 옮겨갔기 때문에 濟州 三邑의 人口는 격감하고 따라서 朝廷에서 이런 사태를 중시하여, 難民들의 島外 出陸과 離散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나 畝주린 島民들의 出陸의 수요는 증가하기만 했다. 成宗 때에 泗川에 濟州島民들이 200여명이 살고 있어 조정에서 논의가 된 것도 그 한 예다.

이렇게 本土 各地로 移住·逃亡하는 자가 속출하자 島內에서 倭寇 防衛와 貢物 獻納 등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朝廷에선 드디어 光海君 12년(1620)에서 憲宗 2년(1836)에 이르는 무려 200년간 出陸禁止令으로 島民들을 묶어 놓기까지 했다. 그 出陸 원인은 ① 食糧難, ② 軍役義務의 過重, ③ 倭寇들의 侵犯에 대한 不安, ④ 土豪 및 官吏의 橫暴, ⑤ 身貢의 過重, ⑥ 朝廷으로부터의 虐待⁵¹⁾ 등으로 고찰할 수 있다.

특히 本島 女性의 出陸과 本土人과의 通婚은 금지되어 있었다. 流配 중인 仁城君의 子息인 海平·海安·海寧 등 三兄弟에게 仁祖 22년(1644)에 君王이 出陸하라는 下教를 내렸으나 朝廷은 “濟州人物 出陸之禁 乃赤宗金石之典”⁵²⁾이라 하여 그 王孫들이 濟州女人과 通婚하고 있었기 때문에 出陸禁止한 예가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宣祖 때 이래 光武年까지 10차례의 民亂이 일어나 官의 民弊와 島民의 生活權에 대해 저항한 것이었다.

濟州島는 約 200년 동안 朝鮮朝의 特殊 政策과 그리고 絕海孤島란 自然的 條件과 隨伴하여 傳統的인 習俗과 古風이 俗化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또 島民의 기질과 성격면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島民은 오랫동안 本土民과의 人的 交流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大陸의 性格과 조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나면서부터 섬이란 한정된 空間에서 閉鎖的 生活로 인한 偏狹과 短氣, 心理的으로는 異俗의인 生活樣式으로부터 오는 孤獨感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⁵³⁾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여야만 삶이 이어지는 것이므로

49) 『上揭書』 卷2 宣祖 34年 9月 29日條

50) 『世宗實錄』 卷70, 17年乙卯 12月己酉條 “濟州人多地窄民 聊生往哉恤 俾安基業… 戶九千九百二十五 人口六萬三千九十三 田則九千六百三十結四十八卜 地利有限 食之者衆 數荒之弊 無歲無之 無田業良人 各從自願 從居陸地 私賤亦從 本土自願出陸”

51) 金宗業 「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耽羅精神 探究세미나』 제주: 濟州大學耽羅文化研究所, 1979. p.14)

52) 『仁祖實錄』 卷13, 22年 甲申 4月癸酉條

53) 金宗業 『前揭書』 pp.16 ~ 17.

이런 不敗의 精神은 바로 耽羅精神의 原型인 것이다. 이러한 濟州島의 역사적 상황은 朝鮮朝에 들어와 黨爭으로 인한 流配라는 政治的 狀況과 결부되어 더욱 복잡해졌다. 朝鮮朝의 濟州島의 歷史的 狀況은 유배에 의해 결정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特徵的이었다.

朝鮮朝의 政治的 狀況으로 濟州島에 流配된 人士들 중엔 中宗 때 己卯土禍로 流配된 金淨을 들 수 있고, 그는 流配 중 主君의 命에 따라 自盡하였다. 戊午·甲子·己卯·乙巳·丁未 등 五大土禍에 관련하여 閔粹·金舜孫·洪裕孫·洪常·柳軒·李世蕃·柳希春·孫弘積 등이 流配되었다.

이 宣祖 이후 東西分黨으로 黨爭이 치열하게 되자 壬亂 때 宣祖가 義州로 파친한 후에도 東·西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李弘老는 濟州에 유배되고 賜死되었다.

大·小 北의 분열로 말미암은 光海君의 난정으로 癸丑獄事와 仁穆大妃의 西官 幽閉事件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여 鄭蘊·李瀾·金膺洙·宋象仁·趙稷 등이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었고 大妃의 친정 어머니 盧氏 夫人이 濟州牧에 安置되었다. 仁祖反正으로 光海君은 濟州牧으로 園籬安置되고 濟州에서 죽는다.

한편 仁穆大妃의 廢黜을 주장한 徐旻·仁城君·李健 그리고 反正 후 主君으로 추대된 禧의로 李德仁과 光海君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朴承祖도 濟州에 유배되었다.

西人이 집권한 후 丙子胡亂을 겪게 되었는데 洪茂績은 胡亂 후 姜嬪獄事に 반대 직언하여 제주도 정의현에 유배되고 李敬興은 鳳林大君의 군왕책봉에 반대하여 제주로 유배당하였다. 肅宗 때 와서 黨爭은 禮論問題와 결부되어 정치권력의 투쟁으로 비화하는 당쟁을 낳게 되었다. 이에 오랜 집권한 西人이 실각하고 南人이 집권하는데 南人의 專斷에 실증을 느낀 肅宗의 傳敎로 庚申大黜陟이 일어나 西人이 재집권케 되고 柳赫然은 大靜縣에 유배되었다. 그러다가 己巳換局으로 西人이 실각하고 宋時烈은 제주도에 위리안치되고, 肅宗의 閔妃 廢黜에 반대하여 金禮寶·金鎮龜 등이 제주에 유배되고, 金春澤은 世子(景宗) 謀害의 혐의로 제주에 유배되었다.

世弟(英祖) 책봉문제를 에워싸고 일어난 辛壬土禍에 관련하여 趙昇彬·趙聖復·趙聖集·柳星樞·金壽天·李時弼·李顯章·徐宗夏·尹志·李巨源·金堯鏡 등이 대정현·정의현 등지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申鉉은 少論의 횡포에 항의하다가 84세의 고령인데도 대정현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英祖는 蕩平策을 써서 辛丑疏에 연명한 少論의 李眞儒를 楸子島에 유배시켰고, 이 蕩平策에 위배한 任徵夏·金有慶·趙觀彬·李存中·趙重明·崔鶴令·任觀周·權震應 등은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正祖도 蕩平策에 주력했으나 세도가 閹閹政治로 심화되어 이 조선조 말기의 세도정치 영향으로 趙貞喆·金正喜·李夏銓·李明赫 등이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곧 제주도의 역사적 환경은 제주도의 원주민이 이룩한 독자적인 것 이외에 1세기 동안의 蒙古의 점령과 조선조의 유배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조의 특수 정책하에 제주도가 완전히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流配人들은 자신의 불우한 流配生活을 창작적 계기로 삼아 국문학상 주옥같은 유배문학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그들의 영향은 제주도에 새로운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

Ⅲ. 濟州流配漢詩의 分析과 性格

1. 金淨의 流配漢詩

金淨은 成宗과 中宗(1486 ~ 1521) 때의 儒學者요 文臣이다. 字는 元冲, 號는 冲庵, 本貫은 慶州이다. 正郎 孝貞의 아들이며, 燕山君 10年(1504)에 司馬試에 합격했고, 中宗 2年(1507)에 增廣文科에 장원하였다. 正言 등을 거쳐 淳昌郡守로 在任 중에 潭陽府使 朴祥과 함께 廢妃 愼氏의 復位를 상소하다가 報恩의 舍淋驛에 유배되었다.

中宗 11年(1516)에 풀려나와 뒤에 副提學, 同副承旨를 거쳐서 吏曹參判 겸 弘文館提學, 대사헌을 지냈고 刑曹判書로서 禮文館提學을 겸임했다. 趙光祖와 더불어 至治主義의 실현을 위해 미신타파, 鄉約의 전국적 시행 등 업적을 남겼다. 中宗 14年(1519) 己卯土禍 때 洪景舟, 南袞, 沈貞 등의 모함으로 趙光祖 등 18인과 함께 禍를 당해 錦山에 유배되었다가 同王 15年(1520) 5월에 珍島로 移配되었다.

錦山 유배 때 母親 問病을 위하여 報恩에 다녀 온 것이 반대파에게 발각되어 서울로 압송당해 死刑을 당할 뻔했는데, 鄭光弼의 도움으로 減一等 免死되어 同年 8월에 제주목에 圍籬安置되었다.

그는 同王 16年(1521) 10월 27일 제주에서 命賜自盡⁵⁴⁾할 때까지 濟州城 동문밖 金剛社(寺) 옛터에 있는 초라한 巨老里 蘆幕에서 流配生活을 하면서 興學教化에 힘쓰고 미신타파에도 힘썼으며 禮法을 가르치는 한편 『濟州風土錄』(1521)을 저술하였다. 그는 流配地에서 자기의 불운한 처지를 생각하며 신상을 자탄하며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있다.

54) 『冲庵先生年譜(乾)』 “14年 11月乙巳因南袞等 密告 下獄杖配錦山……安置濟州 16年 辛巳 10月戊申 命賜自盡”

『中宗實錄』 卷38 15年庚辰正月條 “移配珍島…… 命減死安置濟州 辛巳十月戊申命賜自盡”

遣 懷

海國恒陰翳 荒村盡日風
知春花自發 入夜月臨空
鄉思千山外 殘生絕島中
蒼天應有定 何用哭途窮〈『冲庵先生集』卷3, 「海島錄」〉

夢

溟浪千里隔 蓬山一夢傳
思君不可見 知我者其天〈前揭書〉

雨

落木荒城雨 空堂獨坐時
遙懷在千里 誰與寄雲涯〈前揭書〉

絕 國

絕國無相問 孤身棘室園
夢如關塞近 僮作弟兄依
憂病工侵鬢 風霜未授衣
思心若明月 天末寄遙輝〈前揭書〉

山 雨

蕭蕭山雨下茅庵 秋老荒城晚色酣
故國山川魂自往 不知身在海天南〈前揭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冲庵 金淨은 己卯士禍(1519)로 말미암아 錦山에 杖配되고 珍島로 移配, 濟州에 安置된 후 賜死되었다. 그는 5言絶句 「夢」에서 꿈마다 입에게 전하고자 하나 바다로 천리가 가로 막혀 그리운 입을 볼 수 없음을 自歎하고 있다. 그만큼 濟州島는 罪地요, 꿈

마저도 단절당하는 遠惡地인 것이다. 이러한 自歎은 그의 5言絶句「雨」에서 “千里”로 표현되어 있어 時空이 자꾸만 王都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 쓸쓸히 비 내리는 황성 옛터에서 孤島처럼 혼자서 천리 밖에 있음을 생각하노라면 지난 날의 회상에 젖게 되어 자탄하게 된다.

이어 그의 5言律詩「遺懷」에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 및 流刑囚로서의 신상을 자탄한 정감이 잘 표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柵圍罪人으로 느낀 바다와 바람은 “山高積雪經春在 海濶長風盡日吹”에서처럼 浪漫的 情感과는 달리 언제나 그늘져 있는 바다요, 온 종일 거칠은 촌 마을에 부는 바람 그것이었다. 그러면서 流刑囚로서의 자탄은 絕海孤島에서 殘命이 이어질 때까지 深化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탄은 그의 五言律詩「絕國」에서도 쉬 찾아 볼 수 있다. “孤身棘室圍 夢如關塞近 憂病工侵糞”은 바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冲庵의 처지다.

아울러 이러한 自歎은 그의 7言絶句「山雨」에서도 잘 표백되어 있다. 유배당한 처지이면 서도 늘 마음은 사랑하는 처자들이 있는 故園이 뇌리에 떠오르지만 黑潮로 씻겨 가는 濟州 해변에서 大海原을 바라보면 이 大海를 언제면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며 바다를 향해 마음 속으로 울부짖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오는 날이면 술을 기울이고 고향을 그리는 깊은 愁心이 제주 바다보다 깊어만 갔을 것이다. “故國山川魂自往 不知身在海天南”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달으며 자탄한다.

이러한 심정은 끝내는 비통한 楚辭風의 「臨絶辭」를 써서 千秋의 恨과 怨淚를 뿌린다.

곧 그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뜻이 꺾이고 賜死받게 되자 다음과 같은 「臨絶辭」를 남기고 自盡하였다.

臨 絶 辭

投絶國兮作孤魂 遺慈母兮隔天倫
 遭斯世兮殞余身 乘雲氣兮歷帝閭
 從屈原兮高逍遙 長夜冥兮何時朝
 耿炯丹哀兮埋草萊 堂堂壯志兮中道摧
 嗚呼千秋萬歲兮應我哀

〈『冲庵先生集』 卷 4〉

이 비장한 冲庵의 「臨絶辭」는 自歎에 일관한 젊은 36세를 최후로 하는 朝鮮朝의 楚辭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편협한 士大夫·儒學者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中國 古代 楚의 自決者 屈原에

그 자신의 운명을 타하여 楚辭風の 辭世絕命詩를 남긴 것은 그의 비극 외에도 큰 충격이 된다⁵⁵⁾고 하겠다. 그것은 모든 유배자들의 심경을 승화시키고 집약하였다. 그의 「臨絕辭」는 그러한 점에서 값있다 하겠다.

黨爭으로 인한 宦海 風波는 마침내 流刑囚인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처지를 自歎한 나머지 결백을 애소한 끝에 俗世를 벗어나서 山水를 벗삼고 전혀 物欲없는 선비의 자세로 田園으로 隱遁逃避하려 들게 마련이었다.

次清風亭韻

一髮耽羅望漸開 長風送我日邊來
南中風味如相問 橘柚清香入酒杯 <『冲庵先生集』卷3 「海島錄」>

위의 7言絶句 「次清風亭韻」은 유배생활에서 脫俗의 경지에 깊이를 더해가는 은둔도피에 젖은 이른바 逃避的, 隱遁的인 情趣가 높게 풍기는 詩의 정감을 토로하고 있다.

萬興

迢迢雲影小窓陰 虛室無人伴獨斟
唯有隔林禽鳥樂 提壺終日弄春音 <前揭書>

위의 7言絶句 「萬興」에서도 유배당한 몸으로 現世의 一切에서 은둔도피하려는 심정인 도피적, 은일적 情趣가 풍기는 詩의 情感을 표백하였다.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격심한 당쟁으로 인한 상처와 소외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자연에의 몰입으로 自然愛를 노래하게 된다.

牛島歌

瀛洲東頭鯨擘傾 千年閃影涵重溟
群仙山訴攝五精 鳳鼎一夜轟雷霆

55) 文叢圭 『韓國漢文學史』(서울:正音社, 1961), p.223 에서 이 詩에 대하여 “作詩餘興에 의한 作業의 產物에 不過 “하다고 했는데 죽음의 직전에 시를 쓴다는 것은 作詩餘興이 아니라 절실한 자기 육구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雲開霧廓忽湧出 瑞山新畫飛王庭
 溟濤崩海噬山腹 谿笏洞天深雲扁
 稜層鑲壁錦纈股 扶桑日照光晶熒
 繁珠凝露濺輕濕 壺中瑤碧躡列星
 瓊宮淵底不可見 有時隱隱窺窓櫺
 軒轅奏樂馮夷舞 玉蕭穿窞來青冥
 宛虹飲海垂長尾 龜腸戲鶴飄翅翎
 曉珠明定塵區黑 燭龍爛燁雙眼青
 豳虬踏鱗多娉婷 天吳九首行娉婷
 幽沈水府囚百靈 邪鱗頑甲毒風腥
 太陰之窟玄機停 仇池禹穴傳神蹟
 惜許絕境訛圖經 欄曉拳入雙神形
 鐵笛吹裂老恁聽 水湧雲溟悄愁人
 歸來恍兮夢未醒 嗟我只道隔門限
 安得列叟來風冷

〈『冲庵先生集』卷3〉

위의 7言排律「牛島歌」는 牛島를 보고 난 느낌을 아득하고 황홀하게 숨어들기도 하고, 나타나 기도 하며 시적 재능을 다해 표현하였다.⁵⁶⁾ 유배생활에서 자연에의 沒入에 젖어 보는 심정을 일관성 있게 토로하다가 結句에 와서 유배된 자신을 자탄해 하고 있다. 이어

重陽日有作

海國風烟浩不收 離人腸斷故山秋
 清樽黃菊重陽節 何處高丘憶遠遊 〈前揭書〉

위의 7言絶句「重陽日有作」은 冲庵이 유배지에서 피붙이·살붙이로 맺어진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는 懷鄉의 情을 표백한 것으로 그리움을 腸斷으로 느낄 정도다. 이어

春 暮

愁思縈遊架 隨風過海門
 心情縣素月 流景照鄉園

56) 許筠『惺叟詩話·鶴山樵談』 허경진 『許筠의 詩話』(서울:민음社, 1982) p.191. 참조

永日扃幽戶 清宵倚短垣
不堪頻北望 春暮且煩樽 < 前揭書 >

7 言律詩 「春暮」에서도 冲庵은 懷鄉의 情에 못견디게 참을 수 없어 저무는 봄날에 破酒로 스스로를 달래 보기도 한다. 그럴수록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고향의 처자식들이다.

冲庵의 漢詩는 높고 빛을 번쩍인다고 지적 받은 바가 있다. 漢詩는 中宗 때에 와서 크게 이루어졌고, 그 중에 冲庵은 朴詳과 申光漢·鄭士龍 등과 함께 천고에 홀륭하게 빛냈다.⁵⁷⁾ 이른바 己卯士禍는 趙光祖를 비롯한 道學派와 南袞을 비롯한 詞章派의 대립으로 漢詩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⁵⁸⁾고 하는데 冲庵은 道學派였는데도 詞藻의 才가 詞章派 이상인 것으로 생각한다.

2. 鄭蘊의 流配 漢詩

籬中九日

三三八王府 九九在圍籬
事負佳辰盡 長嗟命數奇 < 『桐溪先生 續集』 卷1 >

記 夢

殘魂飛越到門閭 喜聽雙兒讀古書
仍遇岳君陪話穩 覺來衰淚滿衣裾 < 前揭書 >

風 亂

海近多風浪 城低接瘴霾
美人天北極 孤影地南涯
橘頌吟來久 尊羹想政佳
平生獨往地 今日閉籠懷 < 前揭書 >

57) 『上揭書』 p.191. 참조

58) 趙潤濟 『韓國文學史』 (서울: 探求堂, 1979) pp.189 ~ 202. 참조

村女忤歌

土俗無春整 村娥抱忤歌
高低如有調 斷續似相和
欲解須憑譯 頻聞慚不呵
凄涼曉月下 遠客裳先幡 <『桐溪集』卷1>

望 歸 雲

奔雲渡海向神京 五色煥祥繞帝城
萬里羈臣隨不得 數行衰淚寄將行 <前揭書>

三月晦偶吟 二首

窮囚元不出園籬 春去春來渾莫知
偶見村人間消息 野花落盡綠盈枝

絕域弧囚又送春 跳九日月不饒人
毋恩君德何時報 鏡裡羞看髮似銀 <前揭書>

客舍東軒

大靜東門有弊廬 十年曾是逐臣居
青松四箇應盈尺 脩竹千竿想蔽除
世事浮沈俱是夢 人間榮辱本來虛
瀛洲一曲留珠域 試命歌兒唱酒餘 <前揭書>

副司直 鄭蘊은 大北이 光海君을 응립하고 永昌을 庶人으로 강등, 江華로 유배·賜死한 일이
不忠함과 永昌을 죽인 鄭沉을 죄줄 것과 永昌을 大君의 예로써 葬事지내고 死後이니 追贈하는

은혜를 내릴 것을 상소하여 光海君에게 미움을 사서 大靜縣에 光海君 6년(1614) 8월에 園籬安置되었다.⁵⁹⁾ 그는 憂國衷情에 一貫한 士大夫로서 丙子亂 때는 斥和로 自盡을 기도하기도 한 儒臣이다.

위의 五言絕句「籬中九日」은 그의 自歎을 가장 대표적으로 表白하고 있다. 王府에 있던 몸으로 流配당하여 자신의 사나운 운명과 그 不運을 長嘆하고 있다. 이어 7言絕句「記夢」은 꿈속에서 그리운 임과 가족을 만났으나 깨고 나니 허망함에 눈물만 가득 옷자락을 적시고 「望歸雲」은 구름나라 바다 건너 王都로 향하나 뜻을 이루지 못해 눈물뿌려 自歎하였다. 5言律詩「風亂」은 世上事가 어지러운데 임을 북쪽 王都에 두고 자신은 외롭게 남쪽 流配地에 있어 장속에 갇히어 시름하고 있음을 表出하고 있다.

이어 5言律詩「村女杵歌」는 大靜縣에 유배당한 桐溪가 異香 질은 섬생활의 일면을 노래했다. 濟州島 民謠의 質量은 勞動謠에 있다면, 이 「村女杵歌」는 그러한 勞動謠를 듣고 느낀 情感을 표백하였다고 본다.

이어 7言絕句「三月晦偶吟」二首에서는 자기에게 처해진 유배생활에서 虛送하는 스스로를 깨달으며 그 언제면 主君의 德과 어미의 은혜 값을 것인가 自問하면서 嘆老해지는 心情을 표백하였다. 그리고 7言絕句「客舍東軒」은 流配生活 10년을 돌이켜 보면서 人間事의 浮沈과 世間事의 榮辱이 덧없음을 자탄하고 있다.

이런 身上歎과는 달리 유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哀訴한 심정을 표백한 것으로 다음의 7言絕句「偶吟」을 들 수 있다.

偶 吟

瀛洲遠在海中天 秦漢曾浮採藥缸
聖主却憐危命促 許令歸伴紫霞仙 <前揭書>

옛적 중국의 秦漢 임금은 제주에 약초 캐러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聖主는 도리어 나에게 병을 주시니, 바라건대 병도 말고 紫霞神仙 부르시도록 자기는 억울하게 간신들의 참소와 모함으로 主君에게 忌諱되어 유배당하게 된 것이니, 끝내 主君의 省察을 哀訴하고 있다. 이어

59) 『光海君日記』 卷11 6年甲寅2月丙午條 “兩司語鄭蘊極邊安置”, 『西宮日記』 卷之下 8卷. pp.7~17.

護 成

園中日月過飄然 已邁知非伯玉年
忠孝俱虧猶不死 聖恩如海又如天 〈前掲書〉

위의 7言詩「護成」에서도 忠과 孝를 다하지 않고서 죽을 수 없다고 忠念을 다짐하며 聖恩이 바다와 같고, 하늘 같음을 노래하였다. 이어

靜 中 吟

大靜城東影伴身 梅枝竹色爭無塵
傍人莫笑生涯靜 欲向靜中求主人 〈前掲書〉

得竹實甲

何山竹實大如斯 高鳳雙飛共啄之
霜甲落來浮碧海 瀛洲島上遇相知 〈前掲書〉

위의 7言絶句「靜中吟」에서는 脫俗隱逸의 心情이 표백되어 있음을 본다. 宦路世波에서 떠나 다시는 그 불안한 渦中에도 동요하지 않는 不亂한 ‘靜’의 세계로 沒入하는 그의 心志가 엿보인다. 이어 7言絶句「得竹實甲」에서도 塵世에서는 맛볼 수 없는 脫俗隱遁의 情感이 표백되었음을 본다.

한편 유배생활을 통해 유배지 주민들의 생활고를 보고, 憐憫의 정을 노래한 7言絶句「貧女吟」을 들 수 있다.

貧 女 吟

縞衣貧女不爲容 燈下持針事補縫
夜久假眠衣不解 明朝貸粟又孤春 〈前掲書〉

제주도의 한 여인이 밤새도록 눈부칠 새 없이 바느질하고 새벽녘에 빌려 온 조를 혼자서 밤 아짙는 모습을 연민의 정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3. 李瀛의 流配漢詩

李瀛은 宣祖와 仁祖(1579~1624) 때의 文臣이다. 字는 洞汝, 號는 良翁, 玉浦, 本貫은 慶州 判官 惟一의 아들이다. 光海君 4년(1612) 司馬試를 거쳐 式年文科에 급제하고, 同王 7년(1615) 典籍에 올라 司書, 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同王 10년(1618) 大北派 李爾瞻 등이 永昌君을 江華에서 죽게 한 것과 仁穆大妃 廢母議가 人倫에 어긋난다고 極言極諫의 상소를 올려 光海君의 노여움을 사서 大靜縣에 위리안치되었다.⁶⁰⁾ 仁祖反正(1623) 후 司藝로 기용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故鄕에 돌아갔다.

漢 攀 山

出門避塵囂 望山新面目
歸雲亦有知 使我藏踪跡⁶¹⁾

위 5言絶句 「漢攀山」은 유배지 제주에서 자신에 대한 君主의 忌諱를 마음으로 달래며 亂世와 政事를 잊고, 物欲없는 선비의 자세로 避隱해 하는 詩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어

漢 攀 山

瀛洲山上石 醉臥日欲暮
老人星可摘 無等山猶蹴
浩浩一長歌 氣激海天窄
塵世不可居 吾將駕白鹿⁶²⁾

위의 5言律詩 「漢攀山」은 忠言得罪한 悔恨의 情感에 젖으면서도 그것을 克服하기 위해 漢

60) 『光海君日記』 卷134. 10年戊午11月辛丑條 “李翼太阿倒持之說 不可不鞠問 而係是言 官減死濟州團籬安置”

61) 『耽羅星主遺事』(耽羅星主遺事編纂會, 1979) pp.189~202 참조

62) 朴用厚 『元大靜郡誌』(제주:博文出版社, 1968) p.31.

擎山에 올라 그 정상에서 만취되어 자연에 파묻히고 싶어한다. 이는 마치 蘇軾의 赤壁賦에 “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惟江上之清風 與山間之明月 耳得而爲聲 目寓之而成色 取之無禁 同之不竭”이라고 한 대목처럼 亂倫으로 人倫이 땅에 떨어진 塵世에서 살 뜻이 전혀 없어 차라리 白鹿을 타고 仙境에 살고 싶다는 脫俗隱遁의 淡淡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獨立瀛洲第一峯 視天觀海渺難容
恍遊聖域瞻前後 方信登東小魯封⁶³⁾

위의 7言絶句도 그런 脫俗隱遁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李翼은 金直哉事件으로 유배된 宋象仁, 癸丑獄事로 유배된 鄭蘊과 함께 詩文唱酬하여 流配生活의 고독을 달래기도 하였다. 또 도민들에게 訓學과 예법도 가르쳤고⁶⁴⁾ 濟州의 獻馬功臣인 金萬鎰의 딸을 小室로 삼고 살았다.

4. 光海君의 流配漢詩

光海君은 宣祖의 둘째 아들이다. 宣祖 25년(1592) 壬辰倭亂 때, 피난지 平壤에서 世子로 책봉된 후, 分朝를 설치하고 咸鏡道, 全羅道 등지에서 義兵을 모집, 軍糧米의 조달 등으로 전란의 수습을 위해 힘썼다.

宣祖 39년(1606) 제비 仁穆大妃에게서 永昌君이 탄생하자 小北은 永昌君을 옹립하고, 大北은 光海君을 지지하여 王位繼承問題가 당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大北의 승리로 光海君이 재위(在位 1608 ~ 1623)하게 되었고, 이어 光海君 3년(1611)에 鄭仁弘이 李彥迪, 李滉 등의 文廟從祀에 반대하고, 유생들을 成均館에서 퇴관시켰고 이듬해 金直哉의 誣獄이 일어나자 관련된 文臣, 學者들을 추방하였다.

光海君 5년(1613) 大北派가 朴應犀, 徐羊甲 등 사건을 조작하여 仁穆大妃의 부친인 金悌男을 賜死하고, 永昌君을 庶人으로 강등 江華島로 유배 賜死한 癸丑獄事와 同王 10년(1618) 大

63) 『上揭書』 p.31.

64) 『濟州道誌(上)』 p.183 “李翼은 유배 중에서도 지방 자제들에게 訓學을 하여 그의 문하에는 金晉鎔·高弘進 등 이름있는 선비들이 배출되었다. 그는 제주에서 小室을 두었는데 그의 증손인 李重發과 그의 고손 李壽根은 庭試에 급제했다. 舊韓末 제주지방의 유학자 李基翬 및 그의 아들 李膺鎔는 모두 李翼의 후예다”고 서술되고 있는데 李翼은 慶州李氏의 入島始祖가 되고 金晉鎔은 明道庵이라 호를 하여 그의 호가 부락명으로 정착하였다.

妃의 西宮幽閉事件을 일으켰다. 이에 光海君 15년(1623) 3월 仁祖反正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光海君으로 강봉되고 仁祖反正 초에 喬洞에 유배되었다가 同王 15년(1637) 5월에 제주로 移配되었다⁶⁵⁾가 同王 19년(1641) 7월에 卒하였다. 仁祖는 禮曹參議 蔡裕後를 보내어 護喪하도록 했다.

그에게 流配地 제주도에서 겪은 精神的 狀況을 表白하고 있는 7言絶句 「在園籬中吟」과 7言律詩 「濟州謫中」이란 流配漢詩가 있다.

在園籬中吟

本是同根何太薄 理宜相愛亦相哀
緣何脫此樊籠去 緣水青山任去來⁶⁶⁾

위의 7言絶句 「在園籬中吟」에서는 人倫에 哀訴하는 身上歎의 詩的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한 때 王이던 身分에서 君으로 강봉되었고 園籬安置되고 나자, 자신에의 省察, 懷恨으로 內省化한다. 오랜 旅毒을 피로하기도 전에 음식을 폐지하고 누워서 멀리 또는 가까이 들리는 파도 소리를 따라서 자기 자신의 절망과 孤獨을 붙들고 오랜만의 자기 認識의 고민을 하게 된다.

濟州謫中

風吹飛雨過城頭 瘴氣薰陰百尺樓
滄海怒濤來薄暮 碧山愁色帶清秋
歸心厭見王孫草 客夢頻驚帝子洲
故國存亡消息斷 烟波江上臥孤舟⁶⁷⁾

위의 7言律詩 「濟州謫中」에서도 環海孤島에서의 流配生活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 중 절망과 고독한 내심을 표출하여 自歎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詩는 「癸丑日記」에 의하면 漢文을 몰라 公事에도 많은 불편을 면하지 못하였다는 君主

65) 『仁祖實錄』 卷1 元年 癸亥條

鄭炳昱「癸亥反正錄」(『文學思想』 3호, 文學思想社, 1972. pp.473 ~ 493) “仁祖反正에 의하여 光海君은 도감별장의 호위 아래 포장을 접점이 맡아 사면을 보지 못하게 하여 바닷길로 배를 태워 수개월만에 도착하기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66) 黃秉國 『李朝名人詩選』 (서울:乙酉文化社 1969) pp.79 ~ 80.

67) 『仁祖實錄』 卷42, 19年 辛巳7月條

가 이런 漢詩를 지을 수 있었는가가 자못 의심된다⁶⁸⁾고 하여 시비가 있으나 필자는 이유배 한시를 光海君이 지은 것으로 믿는다.⁶⁹⁾

5. 宋時烈的 流配漢詩

宋時烈은 宣祖와 肅宗(1607~1689) 때의 사람으로 文臣이요, 學者이다. 그의 字는 莢甫, 號는 尤庵, 本貫은 恩津, 金長生의 門人이다. 仁祖 11년(1633) 生員試에 합격 敬陵參奉이 되었고, 孝宗의 스승이 되었다. 이어 孝宗이 卽位(1649) 하자 掌書에 등용, 世子侍講院進善을 거쳐 執義가 되었다.

孝宗 2년(1651) 長陵誌文에 淸國年號를 사용치 않았다는 이유로 功西派 金自點의 밀고와 淸國使臣의 압력으로 낙향했다. 同王 9년(1658) 贊善에 재등용, 이어 吏曹判書로서 孝宗의 北伐計劃을 추진했으나 이듬 해 孝宗이 승하하자 중단 했다.

顯宗 卽位年(1660)에 孝宗의 葬禮로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시비되자 南人의 2年說을 반대하고 暮年說을 채택하였다. 西人의 지도자로서 判義禁府事, 判中樞府事, 左參贊 등을 역임하던 중 顯宗 15년(1674) 仁宣王后의 별세로 다시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제기되어 南人의 2年說이 채택됨으로써 西人의 실각과 함께 관직이 삭탈되었다.

肅宗 1년(1675) 服制論 시비로 慶源에 유배, 熊川, 巨濟島로 移配되었다. 肅宗 6년(1680) 庚申大黜陟으로 南人이 실각하자 敍用되고 奉朝賀가 되었다. 同王 15년(1689) 元子册封 문제에 반대하다가 肅宗의 震怒를 사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顯宗朝 拜右相至左議政 …… 甲寅尹飾借禮論構禍 遂至北謫卒及幽囚於海島 禍益急而毅然 ……
肅宗己巳謫于濟州 拿到井邑賜死,⁷⁰⁾

68) 張德順 『前揭書』 p.369.

69) 金用淑 『李朝의 女流文學』(春秋文庫, 서울:한국일보사, 1975) p.53에 의하면 “궁녀가 쓴 「癸丑日記」가 작품의 입지적 조건이 첫째 작자가 인목대비 편이라는 점. 둘째 성립연대가 仁祖反正 후라는 점. 셋째 이 작품의 고대소설적인 성격 즉 신과 악의 극단적인 대조의 효과라든지 과장같은 점 등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이 작품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광해군의 인물묘사에 흡사 「홍부전」의 놀부나 「장화홍련전」의 제모의 묘사 같은 과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축일기」는 감정에 치우친 과장성과 그 어떤 경향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 본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에 동감이 가는 바가 있다.

70) 安鍾和 『國朝人物志(四)』 p.145.

곧 再鞠問을 받기 위해 上京 도중 井邑에서 賜死되었다. 그는 西人의 巨木이요, 禮學의 碩儒였다. 西人 分裂時엔 老論의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한편 유배생활 중 賜死당하는 비극적인 생애를 마쳤다. 그에겐 流配地 제주에서 창작한 流配時調가 있는가 하면 5言絶句 「耽羅舟中」이란 流配漢詩가 있다.

耽羅舟中

逐客孤舟去 鯨波萬里深
平生仗忠義 虞廟不須尋 <『宋子大全』 卷2 >

流刑囚의 제주도 유배 海路에는 반드시 楸子島를 경유하는 성싶다. 楸子島에서 제주도까지는 500여리, 楸子島 이북엔 군데군데 섬이 있어 비록 배가 漂流하더라도 楸子島에 와 닿을 수 있으나 이남은 絕海島嶼로 漂流하면 中原이나 倭國에 닿는 외에는 茫茫積水뿐으로 舟行者는 楸子島로써 남쪽 경계를 삼는다고 한다.⁷¹⁾

이른바 제주도는 四面의 바다로 둘러싸인 環海天險의 섬으로 입지적, 자연적 조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平常人의 제주도 왕래가 至難한 일이었다면 流刑囚들의 제주도 入島는 生死間의 문제이었을 것이다. 위 5言絶句 「耽羅舟中」은 평생 忠義로 君主를 섬겼으나, 유배당하여 험난한 제주도에의 유배 海路上에서 불안해 하는가 하면 自歎한 情感을 표백하고 있다. 이어

耽羅舟中 其二

孔聖思浮海 涪翁灑淚時
千秋相感意 今日有誰知 <前揭書>

尤庵은 流配된 자신의 처지를 孔子가 “乘桴浮于海” 하던 일과 宋나라의 詩人 黃庭堅이 四川省 奉節縣의 灑淚에 있었던 故事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처지를 어느 누가 알아 줄 것인가 自歎하고 있다. 이어

71) 林梯 『南溟小乘』 “濟州至此水程可五百餘里 而楸子以北則往往有島嶼 故雖漂風而勢可依泊 楸子以南則絕無島嶼西漂則或可至中原 東漂則或可倭國 而其外則浩浩茫茫積水而已 故舟行者以楸子以南爲戒矣”

耽羅謫所

弟兄孫子姪 天外喜同堂
白首何丘首 他鄉似故鄉 〈前揭書〉

위의 5言絶句「耽羅謫所」는 謫所에 온 가족이 함께 동거하고 있으므로 故鄉에서의 生活과 별로 다른 게 없음을 樂天의으로 情感을 述懷하고 있다. 絶島・圍籬安置의 경우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黨爭社會의 참상이다. 그런데도 尤庵의 경우 온 가족이 함께 尤庵따라 유배지에 온 것으로 특수한 예라 하겠다. 尤庵이 慶源流配 때에도 조카 宋疇錫이 陪行하여 流配歌辭「北關曲」을 지은 적이 있다.

尤庵 一族의 濟州 流配生活은 불과 40 여일에 지나지 않았지만 濟州島民들에 끼친 사상적 影響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믿어진다. 짧은 流配生活 동안에 「問疑通放」를 지을 정도였다.

6. 金春澤의 流配漢詩

金春澤(1670 ~ 1717)은 顯宗과 肅宗 때의 사람으로 文人이다. 字는 伯雨, 號는 北軒, 本貫은 光山이다. 光城府院君 萬基의 손자요, 國文學의 대가인 萬重의 증손이며, 行戶曹判書 鎭龜의 아들이요, 肅宗의 첫 왕후 仁敬王後의 조카이다.

肅宗 15년(1689) 5월에 仁顯王后 閔氏를 폐위한 己巳換局으로 南人에게 西人이 실각하게 되자 北軒의 집도 크게 화를 입어 부친이 제주에 유배당하고 그도 여러 번 유배, 또는 투옥되었다. 同王 20년(1694) 甲戌獄事로 南人이 실각하자 放釋되어 나왔으나 西人이 老・少論으로 대립 분열하자 老論에 속하여 同王 23년(1697)에 少論의 탄핵으로 유배, 同王 27년(1701) 무고의 獄事로 扶安에 유배, 同王 32년(1706) 世子 景宗을 謀害하려 했다는 誣告를 받고 加重罪로 제주에 유배당하여⁷²⁾ 先親이 謫居하던 嘉樂川邊의 州妓吳眞의 집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⁷³⁾

72) 『肅宗實錄』卷 44. 32年丙戌 8月丁未條 “上曰以濟州地定配可也” 同 卷 48, 36年庚寅 6月條 “上命出陸”

李建昌 『黨議通略』 “初張希載在謫 聞其妻與春澤通奸 書與諸張 有云春澤欲殺我 并不利 東宮 諸張之鞠其辭……上乃遽問張獄時治事諸臣 年久死亡無可問者 上罷昌集而流春澤於濟州”

73) 朴用厚 『濟州島誌』(서울:白映社, 1976), p.171. 참조

同王 33년(1707) 8월 朴義良의 모함으로 9월 서울로 압송되어 推問 끝에 다시 제주로 유배, 同王 36년(1710) 6월 閔鎭厚의 상소로 감형되어 臨陂로 移配 후 放釋되어 그 후에도 同王 40년(1714) 모략자의 흉계로 유배되었다. 곧 5 차에 걸쳐 유배당하고 3 차나 獄苦를 치르니 斥逐流離로 무려 17년간을 一日一刻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濟州雜詩 其十二

疾病三秋劇 流遷二載強
海山富座近 霜髮共秋長
幽室同蛇蚓 飛騰愧駟驄
焉能乘逸興 杖履入青蒼 <『北軒集』 卷2. 「囚海錄」>

北軒은 聽明強記하여 爲文에 操筆立就하되 汪洋典雅하고 詩 또한 意象이 초월하고 變化무궁하여 세상에 大家라 칭하였다.⁷⁴⁾世子(景宗)謀害 혐의로 제주에 유배당한 北軒은 5言律詩 「濟州雜詩」 其十二에서 3년간 “幽室同蛇蚓”하는 流配生活 가운데 깊어가는 가을이면 높고 병약해져서 언제면 석방이 되어 이 푸른 제주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신상을 자탄하고 있다. 이어

書 懷

客裡頻驚節序催 居然三載大荒隈
鏡添白髮迎春在 座有青燈守歲廻
南海風濤無日了 故園花柳爲誰開
橋林才子鷄林李 舊感新愁共一杯 <前揭書>

위의 7言律詩 「書懷」에서도 3년간 유배생활을 한 우울한 심정과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身上歎의 시적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74) 徐元燮 『歌辭文學研究』(대구:螢雪出版社, 1979) p.187.

偶吟

殘生寂寞滯蠻村 每倚弧城望海門
落木寒潮愁絕處 秋來未有可招魂 <前掲書>

暮春漫吟

桃花飛散濟州城 正值挈山曉雨晴
不識賓鴻何意緒 北歸猶作斷腸聲

看盡花開又鳥飛 大杯未足解愁圍
寄言春色堂堂去 何事爾歸吾不歸 <前掲書：卷3, 「囚海錄」>

北軒의 7言詩 「偶吟」·「暮春漫吟」 등도 계절이 바뀔에 따라 느껴지는 유배생활의 불안·고독·절망으로 인해 失意에 젖은 자탄의 정감을 잘 표백하고 있다.
한편, 王寵을 잃은 任官의 처지로서 유배지에서 못내 戀君에의 表情을 노래하기도 한다.

濟州雜詩 其九

聖朝恩及遠 挈岳比應低
移粟霑紅腐 頒綸降紫泥
九防分險阻 三邑列東西
萬世期酬答 絃歌與鼓鼙 <前掲書 卷2. 「囚海錄」>

곧 聖恩이 버림받은 불모의 땅인 제주에 고루 미치길 바라며 謳歌하였다.

山

我坐此山中 山於我何有
無題一穹窿 知在後峰後 <前掲書>

北軒의 5言絶句「山」은 濟州島의 오름(山)의 특성을 잘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자연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은 유배지에 와서야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이며, '내'속에 '자연'이 있고 '자연'속에 '내'가 있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자면 일체의 주관, 사람의 욕심은 끼어들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自然에의 沒入에 젖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며, 비록 유배생활에 직면한 불안한 정신적 상황이었다고 해도 和靜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濟州所見

靑木線裙短布禪 癸田闍氏淚潛吞
 明朝約伴雙篋公 採得畦頭首蓓根 <前掲書>

7言絶句「濟州所見」은 유배생활을 통해 유배지 주민들의 生活苦를 보고 憐憫의 情을 노래한 것으로, 제주도의 아낙네들이 가난하게 생활하는 모습, 못 입고 못 먹어서 돌 뿌리를 캐어 연명하는 비참한 생활상을 표백하여 憐憫해 하고 있다. 이어

濟州雜詩 其十八

或有宦遊客 留連不憶歸
 醇醪添氣象 紅粉倍光輝
 良馬常多取 潛珠亦暗飛
 島民何所望 御史有霜威 <前掲書>

北軒은 7言律詩「濟州雜詩」其十八에서 濟州牧에서의 유배생활 중에서도 濟州島民들이 “良馬常多取 潛珠亦暗飛” 하는 官弊에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폭로하기도 한다. 여기엔 제주도민의 뼈저린 아픔을 함께 하는 北軒의 역사의식의 일면을 보여 준다 하겠다. 조선조의 유배인사 중에 丁茶山은 유배지 康津 사람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폭로 고발하여 처참하게 고생하며 유배지 現地人들과 함께 하는 역사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北軒의 경우 丁茶山보다 앞서 官의 不正을 폭로하고 島民을 憐憫해 하는 역사의식의 소유자였다. 이어 7言律詩「濟州雜詩」其十九에서 보면

濟州雜詩 其十九

彈丸孤島內 民事自艱難
不料秋蝗作 還承夏雨乾
逐臣江水遠 葛屨曉霜寒
向者祈穰苦 村村設築壇 <前掲書>

그러한 제주도민에 대한 憐憫은 傍觀者的이 아니라 주체적인 관심에서 우러나온 진정으로 표백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濟州島는 척박한 땅으로 농사도 제대로 아니되어 도민들이 식량난으로 本土를 향해 出陸하자 이것을 금하기도 하였지만 出陸의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여기에 官弊에 시달리고 나니 제주도민은 실로 행정 부재의 상황 속에서 善政과 豐年을 바라고 罔原의 祭壇을 쌓아 왔다.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하는 위정자는 없어도 流配人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 다음의 7言絶「絶糧漫吟」에서도

絶糧漫吟

悠悠萬事任天公 五載窮溟困殺儂
更向室人相笑罷 孟光無粟可親舂 <前掲書：卷3, 「囚海錄」>

바로 絶糧으로 해서 어려운 제주도민의 情況을 노래한 것으로써 內在的으로 憐憫하는 정감이 표백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과 탐학을 저질러도 어느 정도 그 관폐가 감추어 질 수 있었고, 또 武人 守丞의 경우 무술에는 뛰어났을 망정 학술적으로는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治民善政보다는 탐욕에만 일삼은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⁷⁵⁾ 金爲民,⁷⁶⁾ 高得宗,⁷⁷⁾ 金勿,⁷⁸⁾ 金錫哲⁷⁹⁾ 李耕云⁸⁰⁾ 등이 올린 弊癘狀은 당시의 守丞과 土豪들에 의한 民瘼을 여실히 예증해 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75) 秦東赫 「李世輔의 哲宗時 現實批判時調考」(『東方學志』 제30집. 연세대학교, 1982. p.219)

76) 『世宗實錄』 卷36, 9年6月丁卯條

77) 『世宗實錄』 卷90. 22年8月己卯條

78) 『成宗實錄』 卷247, 21年11月癸未條

79) 『中宗實錄』 卷19, 8年12月庚申條

80) 『中宗實錄』 卷41, 16年3月壬戌條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는 땅이 원래 火山灰土質임으로 농토가 매우 척박하고 環海孤島로 태풍의 통로인 관제로 해마다 재해와 흉작이 계속하여 항상 기근과 싸워야 했다. 이는 생死的 문제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시를 통해서 표출되어졌다는 것은 유배된 사대부의 마지막 양심의 호소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北軒은 특히 詞藻의 才가 능하였으며 유배지 제주도에서 憂時戀君에의 表情을 표백한 「別思美人曲」⁸¹⁾ 이란 流配歌辭를 창작하였고, 濟州流配時의 隨想記와 詩文集인 「囚海錄」을 썼다. 그는 著書에 「北軒集」이 있고, 西浦의 「九雲夢」과 「謝氏南征記」를 漢譯하기도 하였다.

7. 申鉉의 流配漢詩

申鉉(1642~1725)은 仁祖 15년(1637)에서 英祖 元년(1725)까지 在世한 사람인데 號는 寒竹堂, 色目은 老論이다. 景宗이 즉위했으나 후사가 없어 老論에서는 延弼君(英祖)을 王世弟로 봉하여 대리청정토록 주창했다. 少論派 金一鏡등은 老論들이 無君不德한 짓을 하였으니 극형에 처하고 대리청정령을 철회토록 하여 老論派인 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 등 4대신과 관련자 60여명을 사형 혹은 유배시켰다. 이 辛壬士禍로 무고한 사람들의 모략에 희생되는 것을 보고 申鉉은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도리어 大靜縣으로 유배되었다.⁸²⁾ 景宗 2년(1722) 5월에 84세의 고령으로 柑山村에 도착하여 謫居하였는데 英祖 元년(1725)에 이르러 放還의 명령을 받고 歸家 도중 南海縣 城南에서 客死하고 말았다. 다음의 7言絕句 「送情友詩」는 流配地까지 찾아와 준 友情을 떠나보냄에 있어서 자신의 內心을 표현한 送友人詩라 하겠다.

送情友詩

草色青青映別衣 勞歌一曲送君歸
臨兮莫問佳期處 他日雲山共採薇⁸³⁾

81) 종래 『北軒集』 卷4 詩論文條의 “余來濟州 又以謬作別思美人曲 追和松江兩詞”란 대목을 인용한 朴魯春 4人共編 『歌辭文學全集』(서울:精研社, 1961), p.153.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서울:成文閣, 1979), p.171. 徐元燮 『歌辭文學研究』(대구:螢雪出版社, 1979) p.188 등은 『北軒集』 卷16 詩論文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임.

82) 『景宗實錄』 卷7, 2年壬寅 4月乙卯條 “申鉉疏略無驚動於 謀弒之亂 乃以逆堅亂供 欲爲擠陷朝神沮 敗歇事之計 曉凶徒黨 無非渠之黨與 則唯恐端緒之畢露 欲 緩市朝顯戮 陰藉賊供 力沮大獄 欲絕按治三路顯有和應之跡 上自大臣 下至三司 一筆勾斷 必欲空國 乃已 苟究其心 便一望忘君黨逆之罪……申鉉滅死絕島園籬安置”.

83) 白大鎮 「名詩漢詩選」(『現代文學』 통권 69호, 現代文學社, 1960.9. p.307).

生涯의 마지막에 유배당한 선비의 自歎과 은둔한 분위기가 감도는 詩의 情緒가 짙게 깔려 있음을 본다. 政爭의 나날들, 두고 온 가족, 그리고 妾室의 아름다움, 朋黨들의 회포 따위가 흐르는 물결처럼 流刑囚의 心像 앞을 지나간다. 그런 것이 지나가면, 곧 삶이란 무엇인가 등을 곰곰히 따져본다.

이런 때, 流配地까지 찾아와 준 友情이란 그 깊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일까. “이별가 한 곡조로 우정을 나누며 나뉘에 있어 다시 만날 곳을 묻지 말자”고 다짐하는 情感이야말로 전혀 과장에 물든 표현없이 王維의 「陽關曲」보다 別恨을 曲盡하게 표현하고 있다.

8. 趙觀彬의 流配漢詩

景宗 卽位(1721) 후 老論派 4대신의 한 사람으로 趙泰采는 世弟(英祖)의 대리청정 문제로 少論派와 싸우다가 少論의 領首 金一鏡 등의 책략에 의해 실각되자 그 화로 많은 老論이 숙청당한다. 이른바 辛壬士禍다. 이로 인해 悔軒 趙觀彬은 羅老島로, 長兄 昇彬은 大靜縣으로, 謙彬은 巨濟島로, 형수는 黑山島로 유배당하는 실로 당쟁사상 가장 참혹한 상황에 직면하고 英祖 1년(1725)에 放釋되었다. 同王 7년(1731) 11월에 悔軒은 大司諫으로서 辛壬士禍의 전말을 불러 少論의 李光佐를 탄핵하여 英祖의 蕩平策을 비판하자 英祖의 忌諱를 사서 大靜縣에 유배되었다.⁸⁴⁾

그는 同年 11월 20일경 王都를 출발 康津 경유, 同年 12월 29일 제주 禾北嶺 別刀浦로 입도, 大靜縣 城邑 北門밖의 金蒿의 집을 謫所로 유배생활을 하다가 英祖 8년(1732) 6월에 방한되고 재등용되었다. 絕島流配의 恨과 생활을 소재로 한 詩人이 그의 「悔軒集」에 수록되어 있다.

感君恩 其一

君恩知我苦心存 覽疏當時促召勤

慷慨一封餘意在 許令畢說是君恩 <『悔軒集』卷4>

84) 『英祖實錄』卷30 7年辛亥 10月丁巳條 “教曰趙觀彬初疏 已示微意 及其再疏 露出黨心 噫今之恢蕩 欲扶將亡之國勢 則渠雖急於私讐 獨不念公乎 況今之此舉……其職則都憲也 其所參酌 惜其職也 其貶于大靜縣”

感君恩 其二

君恩罪我豈深文 欲慰時人薄竄云
大海一帆風色好 瀛洲勝觀是君恩 < 前揭書 >

感君恩 其三

君恩憂我瘴蒸熏 善地移來聳聽聞
雖竊便同田里臥 弟兄相近是君恩 < 前揭書 >

感君恩 其四

君恩天大報無門 回首蓬萊隔五雲
殉國初心今白髮 悲歌惟唱感君恩 < 前揭書 >

위 7言詩 「感君恩」 4수의 詩題가 상징하듯이 悔軒의 感君恩하는 丹心이 절절히 잘 표백되고 있다. 主君의 사랑을 받다가 내침을 당했을 때 느끼는 담담하고 안타까운 심경 속에서도 “君恩이 망극하다” 하고 “亦君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선조 사대부의 의식구조이다. 悔軒은 7絶 4首에 “君恩”이 8회나 표현될 정도로 그의 忠念의 불꽃 속에 戀君에의 戀慕의 정을 깔아 가슴에 불태운다. 이어

島中有思

孤臣戀闕倍新年 一夢分明近法筵
暮色蒼茫思美嶽 寒聲嗚咽感恩川
莫言尺地雷霆震 須看遙天日月懸
北鴈不來滄海濶 終南消息幾時傳 < 前揭書 >

7言律詩 「闕之忱」은 戀君에의 忠念으로 忠臣戀主之情을 표백하고 있다. 松江・北軒 등의

歌辭 「美人曲」의 시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性情이다. 이어

書 懷

避世何妨此島間 百年萬覺一身閒
胸中尚有崢嶸氣 欲壓瀛洲萬丈山 <前揭書>

유배당한 몸으로 현세의 일체에서 은둔도피하려는 심정을 표백한 것으로, 避世에 沒入하여 높고 높은 기개를 漢拏山과 同化하는 心志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7言詩「耽羅雜誌」其十四에서

耽羅雜詠 其十四

村女露身裾不成 遠泉汲處負瓶行
兩妻一室生涯苦 日暮杵歌多怨聲 <前揭書>

제주도는 乾川이어서 食水難이 심하다. 아침, 저녁 이슬을 맞으며 허벅을 지고 물질을 와서 방아로 쌀 찧어 밥 짓는게 일과의 시작이다. 제주의 아낙들은 부지런하다고 하나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삶을 누릴 수 없기에 숙명적일지도 모른다. 방아를 찧게 되면 반드시 노래를 한다. 멧돌방아 노래가 그 음조가 애달프게 들리고, 방앗간 역시 괴로워 그것이 원성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邑誌의 風俗에도 “杵歌聲苦 女人作隊擣春必發 杵歌音調甚苦 旋磨亦然”이라 한 것을 보면 悔軒의 7言詩「耽羅雜詠」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위의 7言詩는 제주 아낙들이 어려운 생활상을 표현하여 內在的으로 憐憫해 하고 있다. 이어 같은 「耽羅雜詠」其二十二에서

耽羅雜詠 其二十二

風波瘴癘客堪愁 大罪還宜此地投
自是吾人非俗骨 謫居猶得在瀛洲 <前揭書>

유배된 자신의 신상을 자탄하고 있는 정감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이어 7言詩「閒興」에서는

閒 興

大靜城邊碧波 東風和雨晚來多
村娘似解孤臣意 杵唱分明水調歌 <前揭書>

파도 소리 가까이 들리는, 봄비가 내리는 깊은 밤에 촌색시가 孤臣의 품은 뜻을 풀어 주듯
방아짙는 소리를 한다. 곧 風情을 통해 유배된 자신의 울분이 마치 방아짙는 소리와 조화를 이
루고 있음을 표백하고 있다.

歸 意

不是風波阻 思歸亦未歸
夢余乘白鶴 遠向峽天飛 <前揭書>

이어 5言絶句 「歸意」에서 꿈 속에 白鶴을 타고 유배지에서 벗어나 멀리 날고 싶어하는 懷
鄉의 정에 젖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유배된 자는 살아서 다시 歸鄉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하
기가 힘든 일이니 마음으로는 언제나 歸意에 젖게 마련인 것이다.

9. 任觀周의 流配漢詩

任觀周는 英祖 8년(1732)에 출생, 字는 叔賓, 本貫은 豐川이다. 同王 32년(1756) 丙子庭
試에 급제, 同王 43년(1767) 司諫院正言이 되었다. 그 해(1767) 6월 9일 三相을 비롯하여
吏曹判書, 都承旨 등을 論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 무렵 英祖가 蕩平策을 펴던 시기였으므로
몹시 王의 忌諱를 사서 同年 6월 12일 제주도 大靜縣에 유배되고 85) 安德, 倉川 民家에 謫
所를 마련하여 유배생활을 하였다. 同年 9월 5일 放釋되었는데 安德 倉川溪谷의 岩壁에 다음
과 같은 5言絶句로 된 磨崖詩를 남겼다. 그는 불과 3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유배생활인데도 磨
崖詩로 性情을 읊는 사람이었다.

始出荆門日 先尋枕下川
蒼岩三曲立 短瀑晚楓邊 86) 丁亥秋 任觀周

85) 『英祖實錄』 卷109, 43年 6月條

86) 南濟州郡 安德面 倉川里 倉川溪谷 岩壁 현존

가시문 밖을 출입 못했던 그에게 밤마다 베개 밑에 들려 오던 시냇물 소리가 무척 그리운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골짜기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감격어린 詩를 짓고, 그 글을 시내가 흐르는 溪谷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이다.

위의 磨崖詩는 유배생활에서 自然愛에 젖은 그의 詩心を 표백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磨崖詩는 210여년의 風化 속에 그 획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능히 가누어 볼 수가 있어, 이 溪谷을 찾는 이들에게 그날의 回憶에 젖게 한다.

그는 天帝淵을 비롯하여 島內 명승지를 돌아보고 또 漢擎山에도 올랐다. 지금 天帝淵 西壁과 白鹿潭 東壁에도 그의 磨崖詩가 희미하게 남아 있다. 白鹿潭 東壁에 남아 있는 5言絶句로 된 다음의 磨崖詩는 物慾없는 선비의 자세로 自然愛의 沒入을 노래한 것이다.

茫茫滄海潤 上拳漢擎浮
白鹿仙人待 今登上之頭⁸⁷⁾ 丁亥秋 任觀周

流配生活은 개인적으로는 불우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겪은 직접 체험은 소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 白鹿과 仙人이 기다리는 靈峰, 漢擎의 上上峰에 올라서 넓고 넓은 창해와 그 위에 떠 있는 漢擎山에 자리하여 우람스런 大自然에 파묻힌 작가의 孤高한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는 仙味마저 풍긴다.

天帝淵開大瀑流 移來叢石瀉深湫
空中負箭鶴人步 第一奇觀此射候⁸⁸⁾ 丁亥秋 任觀周

天帝淵 서쪽 암벽에 남아 있는 磨崖詩이다. 中文의 삼단 폭포를 관람하여 그 자연의 풍물을 賞讚하면서 노래한 것이다. 유배생활은 他處의 見聞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이러한 中文의 風物도 詩로써 賞讚하게 되었다.

10. 趙貞喆의 流配漢詩

趙貞喆은 英祖 27년(1751)에서 純祖 31년(1831)까지 在世한 文臣이다. 字는 成鄉, 號는 靜軒, 本貫은 楊州, 吏曹參順의 아들이다. 英祖 51년(1775) 庭試文科에 급제 別檢이 되었다.

87) 漢擎山 白鹿潭 東壁 現存

88) 西歸浦市 中文 天帝淵 서쪽 岩壁 現存

正祖 1년(1777) 洪國榮의 세도와 姜龍輝 등이 正祖를 殺害하려고 한 사건에 연루되어 그 해 9월 11일 제주에 유배되었다.⁸⁹⁾ 그 때 그는 父親喪을 당해 아직 脫喪도 하기전이었으므로 喪服한 몸으로 유배지에 끌려왔다. 濟州島內的 곳곳에 移配⁹⁰⁾ 당하면서 純祖 5년(1805) 4월 羅州로 量移,⁹¹⁾ 同王 10년(1810) 8월 29일 석방되기까지 流配史上 장장 33년간, 그 중 28년간이나 제주도에 絕島流配의 恨과 怨을 남긴 士大夫이다.

한 인간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도 33년간 긴장하면서 총만한 삶을 누릴 순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형수의 처지면서도 일상적이고 평면적인 방식으로 사는 일이 아닐 것이다.

靜軒은 유배생활에서 무엇을 구하려 하였을까 그는 유형수로서의 한 개인적 현존재에 더 한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보편적 경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제량해 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것만이 한 생애를 귀양살이하는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극복해 보려는 선비의 자세였을 것이다.

漢 擊 山

魯聖乘桴意 秦皇採藥愁
那曾窺是海 猶未到斯洲
遠謫僊緣重 相看俗事休
君恩隨處大 且莫恨長流 <『靜軒瀛海處坎錄』卷4>

그의 5言詩 「漢擊山」이다. 임금의 총애를 받다가 정적의 모함으로 내침을 당했을 때 느끼는 담담하고 안타까운 심경, 비록 임금에게 미움을 사고 버림을 받고도 변함없이 君恩에 망극해 한다. 이렇게 亦君恩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른바 조선조의 선비의 의식구조였는데 그러한 君子然한 자세보다도 원망에 찬 연군의 정이 오히려 소박하고 인간미가 있다.

이 「漢擊山」은 연군의 정과 자신의 처지를 자탄한 정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본다.

89) 『正祖實錄』卷4 元年丁酉 8月甲辰條 “龍輝輩……謀逆是實……亦往來於趙貞喆家矣 結案後……趙貞喆減死絕島安置”

90) 『上揭書』卷13 6年壬寅正月條 “移配貞喆於旌義縣”

91) 『純祖實錄』卷7, 5年乙丑4月條 “羅州牧量移罪人趙貞喆”

橘柚品題 其二

嘉樹生南國 芳心死不移

有誰知此意 包貢上丹墀 〈前揭書：卷3〉

제주도의 토산물인 別橘을 소재로 하여 노래한 5言詩다. 別橘은 모양이 마치 병과 같아 일명 瓶橘이라고도 하는데 위는 좁고 아래는 넓으며 향기는 乳甘과 같고 맛은 아주 좋다. 자신의 처지와 연군에의 정을 瓶橘에 비유하여 표백하였다.

제주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병굴, 그 죽어도 변함이 없는 그 꽃다운 마음은 靜軒의 向主一片丹心하는 그 마음에 비유했고,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있어 병굴의 아름다움과 같은 자신의 단심을 알아 줄 것인가 자탄하였으며, 병굴을 입 제신 데 올리고 싶다는 연군에의 정을 표백하고 있다.

곧 靜軒은 그에게 직면한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운명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그래서 자연이거나 풍물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靜軒 자신을 말하여 왔을 것이다.

橘柚品題 其三

燕都會識面 海國又知名

每被多情至 詩腸倍覺清 〈前揭書〉

제주도의 토산물인 大橘을 소재로 하여 노래한 5言詩이다. 大橘은 크기가 柚子만큼 하지만 맛은 극히 시고 물이 매우 많다. 자신의 처지를 大橘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단순한 풍물을 선명하게 노래한 것처럼 보이나 그 시적 내면에 靜軒이 詩를 통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괴로움을 승화시킨 것을 엿볼 수 있다.

곧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처지이면서도 차라리 시 한편을 창작하여 한결 더 시원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脫俗의 淡淡을 읊어 자신의 처지를 자위·자족해 보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시를 창작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있어 보이는 점에서 그의 문학관을 쉬 짐작케 하는 바가 있다. 그는 出仕, 流配, 隱遁 등의 과정에서 시를 통해 삶의 의의를 찾았으리라 믿는다.

橘柚品題 其四

素英元窈窕 貞質更幽閑
一見心如醉 孤懷每自寬 <前掲書>

제주도의 특산물인 唐金橘을 소재로 하여 노래한 5言詩다. 唐金橘은 크기가 乳甘만큼 하고 껍질은 매우 얇으며 맛도 유감과 비슷하다. 자신의 처지를 唐金橘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새하얀 꽃송이 정숙한 꽃의 바탕” 등은 한번 보아도 柗園 죄인의 외로운 심회가 절로 흐뭇하게 심취하여 짐을 표백한 것인데 그 오랜 미움과 원한의 세월 동안 뼈아픔과 찌들림, 가난함 허약한 병고의 몸을 이끌어 가면서도 계속된 유배생활을 극복하는데 자연에의 몰입을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자족해 보려 한 심경이 표백됨을 본다.

곧 외로운 심회, 이것만이 자연과 맺어져 취해버리게 마련인 것일까.

橘柚品題 其七

已包河海志 屢閱風霜天
正似騎鯨客 詩壇氣浩然 <前掲書>

제주도의 토산물인 唐柚子를 소재로 하여 노래한 5言詩다. 당유자는 큰 것은 목과만큼 해서 한 되들이 더 될만하여 익지 아니한 것은 맛이 시지만 누렇게 익으면 맛이 있고 시원하다. 자신의 처지를 唐柚子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한 선비로 忠君愛國하는 큰 뜻을 품었지만 그 뜻도 퍼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어려운 풍상을 겪은 유배당한 유형수의 처지로 한 편의 시를 읊는다는 것도 심기가 호연하여진다는 정감을 노래한 5言詩다.

선비로서 시 한 편을 읊어 빠져린 귀양살이의 비통, 절망, 불안 등을 극복하려고 사랍된 도량을 넓게 펴보이지만 실은 그 내면엔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靜軒의 신앙의 자탄을 심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橘柚品題 其十五

離離石上樹 誰鑿金丸工
多少洞庭品 爾宜居下風 <前掲書>

제주도의 토산물인 石金橋을 소재로 하여 노래한 5言詩다. 石金橋의 열매는 金橋처럼 작고 맛도 비슷하다. 자신의 처지를 石金橋에다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돌 위에 서 있는 금솜씨라서 石金橋이라 했을까, 자신의 처지가 마치 돌 위에 서 있는 石金橋처럼 나쁜 원악지에 버림당한 처지와도 같다. 그래서 자신을 금솜씨로 빗내듯 자기 처지를 가다듬는다해도 오랜 세월 동안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면 마땅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진다는 것일까. 곧 자신의 처지가 石金橋처럼 하다는 것을 비유하여 자탄의 정감을 표백하고 있다.

北 水 閣

危檻憑孤堞 岨嶢勢欲浮
 瞻天星北拱 觀海水東流
 百代逐臣恨 千愁漂子愁
 登臨何處是 人說竹西樓 <前掲書: 卷4 >

제주에 있는 竹西樓를 소재로 하여 자신의 유배생활에 직면한 신상을 자탄한 5言律詩다. 누각에 올라가 하늘을 우러르고 바다를 보며 오랜 세월 귀양살이하는 신하의 한스러움과 긴 세월 동안 귀양살이 하는 자의 수심에 젖는 자탄은 저 鄭松江의 “짓노니 한숨이오 다노니 눈물이라” 「思美人曲」는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判 書 井

吾道非耶日 斯文喪世時
 在陳孔聖厄 觀魯周公衰
 後死今何與 先生古所悲
 空留賈傳井 長近屈原祠 <前掲書>

제주에 있는 「判書井」을 소재로 하여 노래한 5言律詩다. 判書井은 趙光祖와 더불어 至治主義의 실현을 위해 미신타파, 향약의 전국적 시행 등 업적을 남겼으나 중조조 기묘사화 때 洪景舟・南袞・沈貞 등의 모략으로 제주에 유배당한 沖庵이 유배생활 동안에 만든 우물이다.⁹²⁾

92) 前註 30) 참조

冲庵은 자탄에 일관한 「臨絶辭」를 남겨 젊은 36세를 최후로 했는데, 자신의 운명을 탄하여 楚辭風の 辭世絶命詩를 남긴 것은 그의 비극 외에도 큰 충격이 된다고 前述한 바도 있다.⁹³⁾

이러한 사연이 있는 判書井을 보고 冲庵을 기리는 한편 자신의 처지를 자탄했다.

한편, 靜軒은 섬사람들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또 한편으론 제주섬의 여인들이 일에 과중 과로하고 있음을 동정하여 聖恩이 이들에게까지 고루 미치길 기대하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5言律詩 「歎島俗」에서 노래하고 있다.

歎 島 俗

從古耽羅國 居民自懶慵
大都趨末利 餘事視三農
婦女惟耕種 晨昏且臼舂
蠻風誰一變 聖德今時雍 <前揭書>

제주도의 三多 중의 女多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관점에서보다 발일을 여자가 주로 하기 때문에 보여 준 특성이라 생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世宗朝에 흉작 때문에 식량난으로 제주도민들이 당시 제주도 인구 63,000명중 2/3정도가 출륙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한 제주도민의 出陸은 1620년대에서부터 1830년대까지 출륙금지령이 내려졌다.⁹⁴⁾ 자기 생활이 이롭지 않고 여겨 본토로 달아나 버린 섬에서 끝내 어려운 삶을 누리고 있는 아낙들을 憐憫해 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어 5言詩 「望京樓」에서 憐憫

望 京 樓

耽羅三百里 形勝最茲樓
極目惟天水 遊心白鷺鷗
遼遠無箇事 來去有孤舟
誰復知斯趣 紅塵爾也愁 <前揭書>

靜軒은 유배생활에서 오는 은둔도피로 말미암은 자연에의 몰입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에 안겨들어 자연의 미에 도취하여 老之將至를 잊으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靜軒은 세상

93) 前註 55) 참조

94) 前註 50), 51) 참조

사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연의 벗이 되어 자연을 응시하여 자연과 더불어 相浮相沈하였고, 그 생활을 漢詩로 읊었다.⁹⁵⁾ 제주의 자연은 이른바 江湖歌道の 소재로선 훌륭한 것이나, 그것이 제주인에 의해서 보다 유배인에 의해서 내외로 소개되었고, 문학화되었던 것임을 숨길 순 없다.

自 歎

逝矣彈丸島 徒然楞櫟材
難霑雨露澤 易被斧斤災
瘴有三時暗 心無一日開
孤臣長惻滄 永夜獨徘徊 < 前揭書 >

自悼書 其二

兇賊驅我死 聖主迺垂仁
曰汝非惡逆 投之大瀛濱 < 前揭書：卷1 >

自悼書 其八

我是無罪者 王又好生天
仁恩恐莫報 北望淚泫然 < 前揭書 >

自悼書 其九

祖子孫三世 四黜大瀛南
先烈吾難繼 生死皆可愾 < 前揭書 >

枕 上

睡何遲也夜何長 天際寒鴻聲斷腸
萬事如今空白髮 逐臣清淚更千行 < 前揭書：卷2 >

95) 趙潤濟, 前註 58) pp.162~168 참조

客 恨

離騷欲讀酒盈觴 獨倚欄干客恨長
千古湘江不盡感 更聽山鬼泣幽篁 < 前揭書：卷 1 >

賦 一 絕

五更殘夢覺淒然 爲近先朝舊法筵
未死孤臣今絕海 鬢邊雙淚瀉如泉 < 前揭書：卷 2 >

靜軒은 자탄에 일관한 시로 자신의 신상을 표백하고 있다. 5言律詩「自歎」은 詩題에서 보 여 주듯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노래하였고, 5言詩「自悼書」其二,其八,其九는 兇賊들의 참소로 억울하게 유배당하여 자신의 無罪가 主君과 하늘만이 다 알고 있으며 聖恩을 갚을 길 없이 유배당한 자신을 자탄하였다.

이어 7言絶句「枕上」에선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러기 우는 소리가 애끓는 듯 들 릴 때 孤臣怨淚를 뿌리며 자탄한 정감을 표출하였고, 7言絶句「客恨」에선 ‘離騷’와 ‘湘江’ 등의 中國詞華 인용으로 屈原의 충절을 기리며 자탄하고 있다. 7言絶句「賦一絶」은 五更에 꿈에 깨어 지난 일을 생각하며 유배당한 자신의 신상을 자탄하고 있다. 하나 하나 천착하지 않 아도 風浪 거센 宦路에서 玉石을 분별할 힘도 없이 억울한 유배생활을 장장 33년간이나 지낸 靜軒의 恨과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5言詩「自悼書」에 나타난 ‘凶賊’이란 시 어의 사용은 절박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보이나 詩는 감정의 표현인 동시에 감 정의 純化에 있다면 너무 生硬하게 느껴진다.

이어 7言詩「謫中有感」에서 보면

謫中有感

君恩容我忠臣孫 生死人間敢自諉
萬里窮溟還善地 從茲日月總君恩

君恩知我至冤存 瀛海投來善地云

不殺端由天地大 悲歌中夜泣君恩 〈前揭書〉

이는 遠惡地 島配를 당한 처지인데도 아직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君恩에 있음을 노래한 謫中에서의 有感이다. 불과 2편밖에 아니되는 7絶에서 ‘君恩’이라는 단어가 4개나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君恩에 감사하고 있다. 이어 다음의 7言詩 「倚杖」에서도

倚 杖

倚杖紫門更北望 天容海色共蒼蒼
中原此去惟千里 遙挹靈星祝聖王 〈前揭書〉

멀리 北向하여 聖王을 비는 臣下로서의 忠念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耽羅雜詠 其十六

耽羅遙在海之中 男少女多今古同
牧子畦丁蔀屋下 一妻一妾自成風 〈前揭書：卷4〉

耽羅雜詠 其十七

潛女衣裳一尺短 赤身滅沒萬頃波
邇來役重魚難得 鞭扑尋常幾處衙 〈前揭書〉

耽羅雜詠 其十八

旌城少女值朱炎 下不爲裳上不衫
十字街頭闐闐地 負瓶汲水語喃喃 〈前揭書〉

靜軒의 7言詩 「耽羅雜詠」 其十六은 濟州의 三多에 女多·風多·石多가 있는데 그 중 女多로 해서 남자들이 一妻一妾을 거느리고 있는 風俗을 노래하였고, 同 其十七은 해녀에게 과하여진 진상용 어물이 지정된 숫자를 상납하지 못할 때, 관에 불리어 추궁당한 끝에 비참하게 채찍매를 맞아야 했던 海女의 어려운 생활과 관의 학정을 폭로하고 있다. 곧 유배지 제주도민들의

어려운 생활고와 관의 민폐를 지적하여 내재적으로 연민해 하는 심정을 노래하였으며, 同, 其十八은 물길는 제주의 少女들의 風情을 노래하고 있다. 이어 「耽羅雜詠」 其二十一은

耽羅雜詠 其二十一

海中壤土自浮燥 耕不爲深時不早
播穀仍教牛馬踏 磽田處處平如掃 < 前揭書 >

제주도의 특수한 풍속인 우마로 밭 밟는 것을 소재로 하여 노래한 7言詩이다. 제주도의 토양은 거칠고 건조하기 때문에 밭 갈고 씨 뿌릴 때는 우마를 몰고 밭을 밟는다.

제주도에 유배당한 작가가 유배생활을 통하여 인생과 자연을 진지하게 관조해 보기도 하고 異國의 情緒, 風習, 見聞 등을 노래한 것이라 하겠다.

題洪娘墓

瘞玉埋香奄幾年 誰將爾怨訴蒼旻
黃泉路遠歸何賴 碧血藏深死亦緣
千古芳名藹杜烈 一門雙節弟兄賢
烏頭雙闕今難作 青草應生馬鬣前⁹⁶⁾ < 前揭書 >

위의 7言詩 「題洪娘墓」는 한 여인의 순절을 소재로 한 것이다. 이것이 33년간의 유배생활이 끝난 후에 지어진 것이니 세상에 대한 염세를 일으켜 심적 상황으로 연속된 유배적 분위기의 성격을 띤 작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33년만에 한 여인의 무덤을 만들어 순절을 기리고 마음 속에 회상하며 無常과 염세의 느낌에 젖기도 하였을 것이다.

임백호가 黃眞伊의 무덤 앞에서 술을 권하며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 그의 시조는 유명하다. 그러나 靜軒의 경우는 그 사연이 임백호의 것보다 더한 맛이 나며 그 풍류가 한결 짙고 드높다고 하겠다. 靜軒이 제주에 유배 온 지 5년이 되는 1781년(정조5) 3월에 제주목사 金養翬가 부임하였다. 그는 辛壬士禍 때 노론 4대신인 趙泰采의 증손 靜軒을 제거하려고 했었다.

그리하여 그는 판관 黃麟采와 공모하여 靜軒의 유배 후의 새로운 죄목을 캐기에 혈안이 되었다.⁹⁷⁾ 그런데 유형수인 靜軒을 연모하여 그의 유배생활을 돕고 있던 洪允愛란 남자가 있었다.

96) 「題洪娘墓」는 『靜軒瀛海處坎錄』 卷4에 수록되어 있고 濟州道 涯月邑 今德里 木啄旨에 현존하고 있다.

97) 『靜軒瀛海處坎錄』 卷3 “牧使金養翬判官黃麟采…煽謀撲殺無辜要余罔測之科”

그녀가 바로 그 공모의 덫에 걸려들었다. 곧 목사는 유형수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 君王이나 조정대신들에 대한 비방 등 갖가지 올라가미를 씌워 매 70대까지 내리쳐 추궁하였다. 그러나 관가에서의 갖은 고문에도 꾸며진 일체의 죄목에 부인하여 끝내는 정조 5년(1781) 윤 5월 15일에 순절하였다.

이와는 달리 濟州 故老의 所傳에 의하면 5월에 목사에 감사의 밀사가 와서 靜軒을 적당한 죄명으로 杖殺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정헌은 관에 불리어 무서운 매를 맞아 거의 死骸가 되어 나왔다. 이 때 洪娘이 달려와서 매로 죽기 직전 정헌을 집에 데리고 간병을 하여 목숨을 구했다. 당시의 법은 죄인이 장살하도록 매를 때렸는데도 살았다면 다시는 죽이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靜軒은 목숨을 지탱했고 洪娘은 중죄인으로 絞殺 당했다고 한다.

靜軒은 석방된 후 純祖 11년(1811) 6월에 전라도 방어사겸 제주목사가 되어 제주 유배 때 자기 때문에 희생된 洪娘의 무덤을 무려 30년만에 찾아 손수 묘비명을 지어 비원을 달랜 바가 있다.

「洪義女之墓」라고 새긴 비석을 세우고 이면에는 洪娘에게 바치는 애절한 시를 새겨 놓았다. 그 끝에는 「濟州牧使兼 全羅道道 防禦使 趙貞喆」이라고 새겼다. 이 「題洪娘墓」는 靜軒의 人間性과 제주 여인 洪娘의 貞節을 되새기게 하는 바가 있다.

11. 金正喜의 流配漢詩

金正喜(1786 ~ 1856)는 正祖와 哲宗때의 經學者로 金石學者요, 書畫家이다. 그의 號는 阮堂 秋史, 禮堂, 時庵, 果坡, 老果 등등 96 종이나 된다.

判書 魯敬의 아들로 伯父 魯永에게 入養하여 純祖 9년(1809) 生員이 되고 同王 19년(1819) 式年文科에 급제, 忠淸右道 暗行御史, 檢詳을 거쳐 憲宗 2년(1823)에 大司成을 역임하고 吏曹判書에까지 이르렀다.

憲宗 6년(1840) 尹尙度의 獄事 再論에 연루되어 제주 大靜縣에 圍籬安置,⁹⁸⁾ 同王 14년(1848)까지 9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秋史는 절해고도인 流配地 제주도에 入島하여 제주 禾北嶺에 첫 발을 들여 놓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감회를 다음의 7言絶句 「瀛洲禾北嶺途中」에서 나타냈는데 그의 ‘荒寒寂寞之濱’¹⁰⁰⁾에서의 유배생활은 이처럼 시작하여 9년간 유형수로서 형언난측의 천신만고의 고역을 치루게 되었다.

98) 『上揭書』 卷3 “洪娘名允愛毒楚之下氣絶而口猶稱冤禍色尤急雉懸而死”

99) 『憲宗實錄』 卷7 6年庚子 9月辛卯條 “鞠囚罪人正喜大靜縣圍籬安置”

100) 『阮堂先生全集』 卷4 書牘 與沈桐庵(11)

瀛洲禾北鎮途中

村裡兒童聚見那 逐臣面目可憎多
終然百折千磨處 南極恩光海不波 <『阮堂先生全集』卷10 >

위 7言絶句「瀛洲禾北鎮途中」은 承·轉句에서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身上的 自歎을, 結句에선 戀君에의 表情을 表출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제주도는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環海天險의 섬으로 입지적·자연적 조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平常人의 제주도 왕래가 至難한 일이었다면 流刑囚들의 제주入島는 실로 생사간의 문제이었을 것이나 제주도 유배 가는 뱃길에서 秋史는 자신의 毅然한 眞面目을 유감 없이 보여준다. 당시의 정경을 전해 주는 門人 閔奎鎬(1836~1878)의 표현을 보면, 생사를 예측할 수 없어 뱃길이 사나운 바다와 바람으로 위험하여 모두 났을 잃어 울부짖으며 야단인데도 秋史는 뱃머리에 앉아 詩를 지어 태연자약하였다.

제주도는 옛날의 탐라국으로 바다가 그 사이에 있는데 매우 크고 또한 바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항상 열흘이나 한달을 잡았었다. 公이 막 건너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중에 천둥과 번개가 곁들여 죽살이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 배에 뒀던 사람들이 모두 났을 잃어 부둥켜 안고 부르짖으며 도사공 역시 다리를 떨며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公은 곳곳이 뱃머리에 앉아서 詩를 지어 높게 읊으니 소리를 바람과 파도에 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곧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르키며 말하길 「도사공아, 힘껏 키를 잡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니 배는 이에 빠르게 달려서 아침에 떠났는데 저녁에 제주도에 와 닿았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크게 놀라서 날아 건너왔다고 하였었다. 101)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험난한 제주도에의 유배 海路를 지나 무사히 入島한다는 것은 그만큼 流刑囚의 처지이면서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고 여긴다. 이러한 感君恩해 하는 심정을 바로 絶句에서 표백한 것이다. 이어 秋史는 7言絶句「元宵述懷」에서 정초에

101) 『阮堂先生全集』卷首「阮堂金公小傳」“濟古耽羅也 瀛海 在其間其鉅 又多風 人涉恒計旬月 公方涉也 大風濤中 作霹靂 死生俄忽 舟中人皆喪魄抱號 篙師亦股栗不敢前公據然坐柁頭 有詩高詠 聲餘風濤 相上下 因舉手指某所曰 篙師力挽柁向此 舟乃疾 朝發多至濟 濟之人 大驚以謂飛渡也”

元宵述懷

北地家家蜜飯紅 兒童斷送紙鳶風
瓊樓玉宇團團月 分得恩光到海中 < 前揭書 >

임이 제신 구중궁궐에 비치는 달빛이 海島인 제주에까지 고루 비쳐 주는 것은 오직 主君의 德化로 여겨 성은에 감사하며 내재적으로 연군에의 충정을 노래하고 있다.

9년이라는 기나긴 유배생활을 뒷박만한 한간 방에 갇힌 채 보내야 하는 그忍苦의 생활은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이 따랐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모질기로 자부하던 秋史로 하여금 땅을 치고 통곡하게 한 큰 슬픔은 夫人 禮安李氏의 죽음이었다.

유배생활 2년만에 곧 憲宗 8년(1842) 11월 乙巳朔 13일 丁巳에 부인이 他界했다는 슬픈 부고를 받는다. 곧 亡妻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없었고 葬禮도 치루지 못한 괴롭고 슬픈 心思를 다음과 같이 표백하였다.

配所輓妻喪

那將月姥訟冥司 來世夫妻易地爲
我死君生千里外 使君知我此心悲 < 『阮堂集』 >

來世에 부부가 서로 바뀌 태어나서 내가 죽고 그대가 살아서 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가 한 번 겪어야 비로소 짐작하리라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와하는 情感을 노래한 7言絶句 「配所輓妻喪」이다.

秋史의 부인이 他界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死後 7日 뒤에 다음의 滿紙長書를 써서 부인에게 부쳤다.

전편 편지 부치운 것이 인편의 훈 가지로 갈 듯 하오며 그사이 식본관 오순편의 병뉴의 편지 보오니 이 사이 년하야 병환을 세지 못하오시고 일양 진퇴하시나 보오니 밭서 여러달을 미루 하오며 근녀범백에 오작하와 겨오시게습. 우륵정을 자시나보오니 그 약의나 쾌히 동당의 겨시 올지 원의서 심녀초절 하옵기 형용 못하계습 나는 전편 모양이오며 그져 쇼양으로 못견디계습. 강쇠을 아니 보내옵길 업서 이리 보내오나 그 가는모양 참측하오니 객동의 또 일층 심회를 편지 못하계습. 급히 떠나 보내기 다른 스연 길게 못하옵. 임인지월 심팔일 상장. ¹⁰²⁾

102) 『文學思想』(76) 1979. p.335. 이 諺簡의 표기체는 원전대로 밝혔고 띄어쓰기는 필자가 하였다.

기막힌 流配 謫簡이다. 부인의 병환을 걱정한 지아비의 정감이 짙게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부인의 他界를 전혀 몰랐던 秋史로서 뜻밖의 그 訃音을 받고서 그 얼마나 절통했는가. 그의 「配所 輓妻喪」은 바로 이런 情況 속에서 지어진 것이었다. 이 悼亡詩엔 柵圍罪人으로서 상처한 恤鰥寡孤獨의 정감이 짙게 표현되어 있음을 본다.

한편 秋史는 生離死別한 아내의 죽음, 그 죽음 곁으로 달려가는 것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은 통한을 「夫人禮安李氏哀逝文」에서 다음과 같이 표백하고 있다.

아아, 나는 著綱가 앞에 있고 산과 바다가 뒤를 따랐으나 아직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한날 아내의 죽음에 놀라 가슴이 무너져서 마음을 견잡을 수 없으니, 이 어쩐 까닭인가, 아아, 대체로 사람마다 죽음이 있거늘 홀로 부인만 죽음이 있지 않을 수 있으리요 만 죽을 수 없는데 죽은 까닭으로 죽어서 지극한 슬픔을 품게 되었을 것이고 기막힌 원한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뽀여 내면 무지개가 되고 뻗히면 우박이 되어 죽히 孔夫子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기에 著綱보다도 더 심하고 산과 바다보다도 더 심함이 있는가 보다. 103)

이 얼마나 애절한 亡婦辭이며 流配祭文인가. 이 무렵 秋史의 喪妻를 위로하러 草衣가 제주바다를 건너가 지극한 友誼를 보인다. 104)

秋史의 7言絶句 「配所 輓妻喪」을 輓歌 輓歌詩를 대신하는 悼亡詩라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으며 그 심각미와 절실미가 斯界의 上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언제든지 懇懇惻惻하게 인정의 깊은 밑바닥을 찌르는 듯한 정감을 표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秋史의 정신적 상황의 일면인 人間的인 통한과 自歎을 보여 주고 있다.

당쟁으로 인한 宦海風波로 官府에서 쫓겨 絕海孤島로 유배당한 많은 유배인사들에게 世事를 떠난 隱遁逃避에서 오는 自然에의 沒入에 젖은 경향이 있었듯이 秋史도 유배생활 동안 異域他關인 제주의 자연을 즐겼고, 그것을 통하여 유배생활의 千辛萬苦를 이겨낼 수가 있었으니, 실로 제주의 자연을 사랑한 바가 되었고, 한라산의 靈氣는 실로 탐라의 초목에만 뭉쳐서 부러워하기도 했던 것이다. 105) 그 중에서도 제주의 水仙花에 賞讚을 아끼지 않았다.

103) 『阮堂先生全集』 「夫人禮安李氏哀逝文」 “嗟嗟乎 吾柎楊在前 嶺海隨後 而未嘗動吾心也 今於婦人之喪也 驚越遁剝 無以把握其心 此曷故焉 嗟嗟乎 凡人之皆有死 而獨夫人之不可有死 以不可有死而死焉 故死而含至悲茹 奇冤將噴而爲虹 結而爲壺 有足以動夫子之心 有甚於柎楊乎 嶺海乎”

104) 『阮堂先生全集』 卷5 에 草衣에게 보낸 書簡(與草衣書)이 38 통이나 수록되어 있음을 볼 때 雲水行脚에 나선 草衣와 秋史는 극진한 友誼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105) 『阮堂先生全集』 卷3 與權敦仁(5) “漢擊靈異磅軋之氣 鍾在草木而已耶”

水仙花

一點冬心朵朵圓 品於幽澹冷篔邊
梅高猶未離庭砌 清水眞看解脫仙 <『阮堂先生全集』: 卷 10 >

호미 끝에 버려진 예사로운 水仙花를 얼마나 賞讚하고 있는가, 위 7言詩「水仙花」에서 선비의 마음 가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른바 脫俗的 空間을 그려 주었다.

碧海青天一解顏 仙緣到底未終慳
鋤頭棄擲壽常物 供養窓明几淨間 <前掲書>

水仙花는 제주 섬 곳곳에 많이 자란다. 골짜기와 발마다에 무성하게 자라는데 島民들은 이것을 잡초로 여겨 보리같이 무렵 호미로 베어 버린다. 秋史는 5言詩「水仙花」에서 제주의 도처에 피고 지는 水仙花를 賞讚하면서도 그 內面에 水仙花의 高孤한 眞價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自歎하고 바로 자신의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불우한 처지를 水仙花에다 비유하고 있음을 쉬 짐작케 한다. 그리고 山野를 뒤덮어 구름같이 피어나는 自雪같은 水仙花의 꽃향기에 취하고 머리통 만한 줄기를 자르면 甘露樹의 시원한 樹液으로 목을 축이면서 외로운 유배생활을 곳곳하게 이겨내었다.

이어 秋史는 다음의 7言詩「年前禁水仙花」에서 水仙花를 상찬한 끝에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水仙花에 비유하여 가슴 아프게 자탄하였다.

年前禁水仙花

龍窟曾未到神山 玉立亭亭識舊顏
一切天葩元不染 世間亦復歷千艱 <前掲書>

水仙花는 원래 하늘에서 태어난 꽃으로 전혀 세속에 물들지 않은 날씬하고 맵시있는 꽃이다. 그런데 세간의 路邊에서 숫한 고생을 겪고 있다. 그것은 왕도에서 입을 가까이 모시던 秋史가 유배당하여 千辛萬苦의 고역을 겪고 있음과 같은 비유이다. 7言絶句「年前禁水仙花」에서 수선화의 본성대로 자라지 못하고 푸대접 받고 있는 제주에 있어서의 수선화를 통해 자신의 신상을 자탄한 이 시적 비유는 상당한 함축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前述한 바와 같이 秋史는 유배생활 중에 亡妻喪을 당하는 不運을 겪어 암담한 처지가 된다. 곧, 「配所輓妻喪」과 「水仙花」 등을 통해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自歎을 표백하면서도 前者에서는 生滅一如같은 時間觀을 詩心에 나타냈는가 하면 後者에서는 脫俗의 空間을 그려 주었다.

한편 秋史에게 주어진 園籬安置란 형극이요, 제약된 場所로 그의 自然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7言絶句 「大靜村舍」「村舍」등은 바로 이 점을 그려 준 것이다.

大靜村舍

綠簷丹木紫牛皮 朱黑紛紛批抹之
工庫文書生色甚 背糊村壁當看詩 〈前揭書〉

大靜縣은 대표적인 유배지이다. 제주도가 절해고도로 원악지 유배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유배지인데 그 중에서도 대정현은 중죄인시하는 자만 유배되던 곳이다. 대정현에는 모슬포가 있는데 유배자들의 출입이 많아 속칭 ‘모슬포’를 ‘못살포’라 불리어 왔다는 구전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한 대정현에 유배당한 秋史가 대정의 村舍를 보고 느낀 바를 표출한 것인데 위 7言詩 「大靜村舍」는 村舍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도배한 시골집에서 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배자의 왕래가 많았음을 암시해 주고 懷古의 정에 젖고 있다.

村 舍

數朵鷄冠醬瓿東 南瓜蔓碧上牛宮
三家村裡徵花事 開到戎葵一丈紅 〈前揭書〉

「村舍」의 風景이 한층 더 靜態化해 보여 東洋畫의 畫幅처럼 펼쳐져 그의 絶品 「歲寒圖」 속에 그려진 松柏後凋의 節操를 함께 하는 草家를 충분히 연상케 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비록 유배당한 처지면서도 이러한 自然界로써의 外物인 村舍(園籬安置된 환경)를 어떻게 수용·융화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秋史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自然에의 沒入에 젖게 되고, 유배생활에 직면한 불안한 정신적 상황 속에서도 和靜을 구하게 된다.

제주도는 絶海의 孤島이다. 척박한 땅과 모진 바람, 비가 많은 기후에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섬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지척도 알 수 없었다. 고려 元宗 14년(1273)에 三別抄 싸움의 격전지로서 제주도는 초토가 되다시피 했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元의 세력이 진주하면서 갖은 횡포며 忠烈王 元년부터 元에서 죄인들을 이 곳으로 유배시켰고, 그 해 100여명

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106) 이는 異國의 죄인들이 사는 流配地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부터 정치적 망명자나 世事에 뜻을 버린 자 또는 정치적인 죄인들이 들어와 사는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유배지가 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7言絶句「七羅」는 三別抄를 討伐한 후 충렬왕 때 元에서 제주도에 達魯花赤를 두고 통치했는데 그 유적을 찾을 수 없음을 無常함을 표백하였다.

七 羅

駟牟於古亦耽浮 儒李城空枕海頭
要足九韓風土志 魯花遺蹟苦爲求 <前掲書>

곧, 達魯花赤의 유적을 懷古하러 詩心を 가다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적을 찾을 수 없음을 無常感에 젖고 있다고 하겠다.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 중에서 가장 질게 그림자 지어지는 것은 지난 날의 화려한 權座에서 君主의 버림과 政敵에게 미움을 사서 先勢를 하여 유배당함으로써 느껴지는 虛無感인 것이다. 이러한 虛無感을 魯花遺蹟을 빌어 秋史는 자신의 虛無感을 표백하였을 것이다.

遠浦歸帆

江南水退秋光淺 風柳參差萬絲卷
鷺鷥在梁鳧在渚 蕩蕩扁舟去家遠 <前掲書>

宦海風波로 官府에서 쫓겨난 秋史, 그것도 死刑에서 滅死되어 유배당한 처지가 되고 보니, 出仕와 流配의 나날들과 두고 온 가족, 그리고 喪妻의 뼈아픔, 懷鄉의 정 따위가 흐르는 물결처럼 流刑囚로서의 秋史의 心像 앞에 지나간다. 그런 것이 지나가면 곧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진 자신의 외로움은 무엇인가 등등을 꼼꼼히 省察하게 된다.

絶句의 ‘蕩蕩扁舟去家遠’은 바로 秋史의 처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又陵釣室

垂竿何人無意來 晚風落葉何颯颯

106) 註1) 참조

了無得失動微念 況有興亡生遠哀 〈前揭書〉

朝鮮朝의 당쟁을 통하여 政治人, 文臣學者들의 현실도피사상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현실도피사상을 흔히 隱遁思想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逃避的 隱遁이 아니라 超世的 隱遁이 있어 왔음을看過할 수 없다. 이런 超世는 山林이나 江湖로의 도피나 世間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俗世에 살거나 仙境을 찾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관심이나 名利에 관심이 없고 非是利害를 잊고 살려고 한다.¹⁰⁷⁾

당쟁으로 인해 梲園罪人이 되어 絕島에 유배당하자 隱遁逃避하는 심정에서 自然에의 沒入에 젖다가도 제 나름대로 出仕, 流配, 隱遁, 復權 등등 得失을 생각하게 마련인 것이다.¹⁰⁸⁾

秋史의 경우 園籬安置라는 狀況이 너무도 기막힌 死路와도 같은 험난한 일이었기에 이른바 “了無得失動微念”이었고 “況有興亡生遠哀”의 心情 그것이었다.

起, 承句에서 自然에의 沒入을 노래하다가 轉, 結句는 雙關을 지어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정신적 狀況인 自歎을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商山四皓

憶昔采芝有園綺 猶被雷侯迫之起

莫將名聲落人間 隨此橫圖卷秋水 〈前揭書〉

中國의 故事를 引據하면서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자신의 安分과 守分을 통해서 知足을 넘어서 悠悠自適의 경지를 표백하고 있다.

起句에선 자신을 지초캐던 漢의 商山四皓 중의 東園公·綺里季 두 사람으로 비유하였고 承句에선 政敵의 모함을 漢의 張子房의 꾀박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어 轉句에선 당쟁으로 인하여 政敵에게 갖은 모함과 미움을 사서 유배당한 처지가 되고 보니 선비로서 그토록 지키고 믿었던 正名, 王道, 德治, 禮治 등을 비롯한 大義와 名分도 마치 헌신짝처럼 땅에 떨어진 느낌에 젖게 마련, 그래서 다시는 ‘莫將名聲落人間’이라 하며, 守分을 다짐한다.

107) 李鍾殷 「國文學과 道教思想」(『李丙疇先生 周甲 記念論叢』 1981, pp.389 ~ 390.)

108) 崔珍源님은 「江湖歌道研究」(『國文과 自然』 서울:成均大出版部, 1977. p.26)에서 “李朝兩班의 本心이 兼善의 仕官에 있는 것이지 退而自守의 歸去來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儒學은 經國濟民의 兼善을 이념으로 삼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는데 유배된 사대부의 자세도 이와 같다.

結句에선 轉句의 守分 避世의 哲理 속에서 스스로 高踏을 추구해 나간다. 現實과 名리에 관심을 갖기보다 江湖를 즐겨 莊子 秋水篇과 벗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不運한 유배생활 속에서도 自適하는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炎溪尋友

王載溪頭小隱仙 漁翁引上霈溪船
幾廻卷釣思歸去 又爲蘋花往一年 <前掲書>

秋史는 園籬安置를 마치 ‘又爲蘋花往一年’의 심정으로 9년을 지낸 것이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유배생활을 통한 修身時分의 생활이요, 적극적으로는 비록 不遇하게 유배당한 처지였음에도 선비의 道를 찾고 즐긴 생활이었다.

요컨대, 9년의 유배생활을 한마디로 苦難과 艱難이 연속되는 不遇한 千辛萬苦의 생활이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도 自然에의 沒入으로 悠悠自適할 수 있었던 것은 孔子의 말대로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의 경지이며 知之者를 뛰어 넘는 悠悠自適한 樂之者의 경지 그것이었다.

起·承句에서 故事를 引據하여 好之者의 性情을 표백하였고, 轉句에서 知之者나 好之者를 뛰어 넘는 悠悠自適한 樂之者의 性情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自然에의 沒入은 自然隨順의 人生觀으로 유배생활을 지낼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이것은 安分과 守分을 통해서 知足을 넘어 悠悠自適, 樂道에 서고, 無辱에 노니는 竹林, 江湖思想과 연결이 이루어진다.¹⁰⁹⁾

그리하여 孤高寒士의 苦惱가 낀 秋史의 流配漢詩가 오히려 風流로 비친 異色을 볼 수 있다. 참담한 정신세계를 悠悠自適하고 안온한 江湖의 세계를 승화시킨 점에서 秋史의 風度를 엿볼 수 있다.

江村讀書

鯉魚風急鴈烟斜 數柳橫遮四五家
底事枯蛙燈火底 漁歌也小讀聲多 <前掲書>

109) 金円卿 「時調에 나타난 杜詩의」(『李丙曠先生周甲記念論叢』1981, p.86)

秋史는 7言絶句「江村讀書」에서 脫俗의 淡淡함을 표백하고 있다. 기러기 나는 江村 謫所에서 등잔불 아래 독서하는데 어부가가 컷전에 들러오는 광경, 자연에의 몰입에서 자기의 守分을 생각하여 수양하고 있는 秋史의 모습이 선명히 떠오를 것이다. 유배라는 한계에서 守分을 깨쳐 독서하므로 克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호엔 피비린 내 나는 중상모략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부의 노랫소리가 있어 실로 脫俗隱遁의 세계인 것이다. 이어 그의 7言律詩「無題」에서도

無 題

詩味如禪厭濁腥 燈南香北道心明
半生識字頭顱白 九死看山骨髓青
引履徘徊歌酒頌 闕門寂寞注華經
朝來夢覺人何在 雨後杜鰲開滿庭¹¹⁰⁾ 〈雪昆醍醐〉

寂靜한 詩情에 젖어 세속을 멀리한 은둔도피의 정감을 잘 표백하고 있다. 이어 7言絶句「無題」에서도

無 題

赤藤扶我上天臺 萬朶仙雲手撥開
洞裡桃花長不落 何因流出碧溪來¹¹¹⁾

신선 구름 송이송이 손 들어 헤치고 仙境의 복사꽃 이내 지지 않는 곳, 시냇물이 따라 흘러 오는 그런 자연에 몰입하는 孤高한 모습을 쉬 상상할 수가 있다.

유배생활을 통해 지난 날 거센 풍랑처럼 정적 숙청만을 일삼던 당쟁의 극악상을 慨世한 것으로 秋史의 7言絶句「蠅」을 들 수 있다.

110) 『阮堂先生全集』과 別個의 『秋史文集』 拙者が 82年 9月 金一根님에게서 구하여 영인 함

111) 『秋史詩抄』(『文學思想』(119) 1982, p.253)

蠅

太末蟲飛沸若雷 幾時大火聚邊回
 溝渠浮世多情甚 抵死驅之低死來 〈前掲書：卷10〉

秋史는 당쟁의 극악상을 파리를 빌어 비유하여 慨世의 정감을 표백하고 있다. 당쟁의 극악상을 일일이 예거할 필요는 없다. 당쟁의 참여자들을 날아다니는 파리떼로 비유하고 結句에서 당쟁의 극악, 거기에 따른 피비린내 나는 희생을 토로하고 있다. 유배된 자는 당쟁에 참여하여 저항하고, 죽이고, 쫓기고, 또 저항하고 죽이고 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하여 유배된 자들이다. 당쟁에서 실각하며 파리의 신세처럼 도랑에 날아다니고 파묻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당쟁의 극악상을 보고 慨世하고 있다. 위 7言詩「蠅」은 당쟁으로 말미암아 유배된 자가 慨世를 노래한 것으로 대표적인 시라 하겠다.

馬 磨

人十能之用一之 三家村里詭神奇
 大機大用元如此 還笑宗風老古錐 〈前掲書〉

유배생활을 통해 異國의 情緒, 風習, 見聞 등을 소재로 하여 유배자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심리와 정서의 가미로 노래하게 마련인데 위 7言詩「馬磨」는 제주도 풍속인 말방아를 노래한 것이다. 제주도가 본토와는 그 지리적·자연적 환경이 다르기에 異香 짙은 풍속이 많은데 이것이 시의 소재로 표출된 것은 유배인들에 의해서 많이 취재되어졌다. 위 7言詩「馬磨」는 제주 섬에서만 볼 수 있는 風情을 詩化한 것이다.

IV. 結 論

이상에서 考察한 濟州流配漢詩에 나타난 主題的 內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流配漢詩에 나타난 主題的 內容

年 代	作 家	流 配 地	事 件	色 目	內 容 作 品 類	戀	身	自	隱	慨	憐	樂	風	痛	別	懷	懷	無	哀	
						君	上	然	遁	世	憫	天	情	恨	恨	鄉	古	常	訴	
中	宗	金淨	濟州牧	己卯土禍	道學派	11	6	1	2								2			
光	海	君鄭蘊	大靜縣	癸丑獄事	東人	13	1	8	2	1										1
"	"	李濱	"	仁穆大妃廢黜	"	3			3											
仁	祖	光海君	濟州牧	仁祖反正		2	2													
肅	宗	宋時烈	大靜縣	己巳換局	老論	3	2				1									
"	"	金春澤	濟州牧	世子謀害嫌疑	"	11	1	5	1		4									
景	宗	申鉉	大靜縣	辛壬土禍劾彈	"	1									1					
英	祖	趙視彬	"	蕩平策背	"	10	5	1	1	1	1	1				1				
"	"	任觀周	"	"	"	3		2				1								
正	祖	趙貞喆	"	正祖殺害嫌疑	"	25	5	11	2	1	2	3								1
憲	宗	金正喜	"	尹尙度事	僻派	18	2	3	4	3	1		1	1		1	1	1		
計						100	14	38	10	12	1	8	1	6	1	1	4	1	2	1

위의 流配作家 金淨·鄭蘊 등등 11명의 濟州流配漢詩 100수에 나타난 主題的 內容을 分析 考察한 結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結論을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그 主題的 內容이 ① 身上歎, ② 戀君, ③ 隱遁逃避, ④ 自然愛·憐憫, ⑤ 風情(俗), ⑥ 懷鄉, ⑦ 無常·慨世·樂天·痛恨·別恨·懷古·哀訴 등의 順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濟州流配漢詩의 性格인 思想的 內容의 特質로 要約할 수 있다. 그 중 支配的인 內容

은 政治的·時代的 狀況인 당쟁으로 인해 王寵을 잃고 政敵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 不遇하고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自歎·哀訴한 身上歎이었다. 이것은 곧 濟州流配漢詩의 性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비록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처지이면서도 儒教的인 忠君愛國의 정신으로 변함없이 戀君에의 忠念·聖恩을 노래한 戀主思想이 나타난 것은 朝鮮朝 儒教社會의 時代潮流요, 그 反映이었다는 것을 再確認할 수 있다.

세째, 격심한 당쟁으로 인해 流配당하므로써 亂世의 不安보다 脫俗隱逸에 젖어 世事를 잊어 버리려는 隱遁逃避가 나타나 있으며, 아울러 이런 隱遁逃避의 感情에 기인한 自然愛도 內容의 特質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 流配文學은 바로 朝鮮朝 山林文學의 底流와 脈을 함께 하는 것으로 그 형성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斷定할 수 있다.

네째, 注目할 것은 憐憫으로 流配地의 濟州島民이 겪은 어려운 생활과 官의 民幣를 고발하여 島民들에 대한 憐憫의 情을 노래하였는데, 丁茶山의 康津流配 때의 漢詩가 현실을 고발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유배된 처지에도 주민과 함께 호홉하여 歷史意識을 보여준 鄭蘊·金春澤·趙貞喆 등의 漢詩가 國文學史上 茶山의 것보다 前代의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그밖에 濟州島만이 갖는 風情(俗)을 노래한 것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유배생활을 통해 異國의 情緒, 風習, 見聞 등을 소재로 하여 유배자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심리와 정서의 가미로 異香질은 風俗·風習 등이 시의 소재로 표출된 것은 문학의 소재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여섯째, 濟州島에 流配되어온 士大夫들이 관여한 정치적인 黨의 色目は 11명 중 老論이 7명이나 되어 流配作家의 特性은 당쟁에 관여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黨勢가 강했던 西人系列의 老論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유배자 11명 중 8명이나 大靜縣에 유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大靜縣이 最惡의 유배지요, 대표적인 유배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곱째, 朝鮮朝의 濟州島는 중죄인을 다스리는 최악의 유배지로 1620년대에서 1830년대까지 濟州島가 出陸禁止令으로 완전히 本土와의 交流가 斷絶된 상황에서 流配人들은 불우한 유배생활을 그들의 소중한 創造的 空間으로 그리고 創造的 契機로 만들어 나가면서 濟州島民에게도 상당한 문화적 정신적인 교류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덟째, 朝鮮朝 士大夫의 知的 傳統과 教養이 漢詩文에 그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제주도 流配된 士大夫들은 自己 限界와 自己 認識을 자연히 漢詩文을 통해 표현하게 되어 流配 漢詩가 많이 創作되어졌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점에서 濟州流配文學은 朝鮮朝 流配文學의 性格을 정당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귀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1. 原 典

『三國史記』, 『高麗史』, 『隋書』, 『元史』, 『瀛洲誌』, 『朝鮮王朝實錄』, 『東史綱目』
『大典會通』, 『大典通編』, 『新增東國輿地勝覽』

金 淨, 『冲庵先生集』

許 筠, 『惺所覆韻稿』

鄭 蘊, 『桐溪集』

——, 『桐溪先生續集』

林 悌, 『南溟小乘』

金尙憲, 『南槎錄』

宋時烈, 『宋子大全』

金春澤, 『北軒集』

趙嗣彬, 『悔軒集』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

李元鎮, 『耽羅誌』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 『雪昆醍醐』

『日省錄』

李建昌, 『黨議通略』

金錫翼, 『耽羅紀年』

2. 著 書

金秉坤, 『李朝黨爭史話』 서울: 三中堂, 1967

金用淑, 『李朝의 女流文學』 서울: 韓國日報社, 1975

內務部, 『島嶼誌』 서울: 內務部, 1973

文璇圭, 『韓國漢文學史』 서울: 正音社, 1961

朴魯春外, 『歌辭文學全集』 서울: 精研社, 1961

朴晟義, 『韓國古典文學背景論』 서울: 宣明文化社, 1968

- 朴用厚, 『元大靜郡誌』 제주:博文出版社, 1968
- _____, 『南濟州郡誌』 서울:상조사, 1978
- _____, 『濟州島誌』 서울:白映社, 1976
-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대구:螢雪出版社, 1979
- 徐臺教,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 서울:韓國法令編纂會, 1968
-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서울:世宗文化社, 1972
- 禹樂基, 『濟州道』 서울:韓國地理學研究所, 1968
- 李家源, 『李朝名人列傳』 서울:乙酉文化社, 1965
- 李丙燾, 『韓國史大觀』 서울:普文閣, 1966
-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대구:螢雪出版社, 1974
- _____, 『李朝歌辭精選』 서울:精研社, 1965
-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 서울:成文閣, 1979
- 張德順, 『韓國文學史』 서울:同和出版社, 1977
-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通史』 제주:濟州道教育委員會, 1974
- _____, 『耽羅史料志』 제주:濟州教育委員會, 1981
- 濟州道, 『濟州道誌』 제주:濟州道文化公報室, 1982
- 鄭堯一外, 『韓國古典詩學史』 서울:弘盛社, 1980
- 震檀學會, 『韓國史』 서울:乙酉文化社, 1959
- 趙潤濟, 『國文學概說』 서울:東國文化社, 1955
- _____, 『韓國文學史』 서울:探求堂, 1979
- 崔完秀, 『金秋史評傳』 서울:知識產業社, 1976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서울:成均館大出版社, 1977
- 허경진, 『許筠의 詩話』 서울:民音社, 1982
- 玄相允, 『朝鮮儒學史』 서울:民衆書館, 1949
- 黃秉國, 『李朝名人詩選』 서울:乙酉文化社, 1969

3. 論 文

- 金基東, 「冲庵金淨의 流配文學攻」 『慶熙大學院 碩論』 1982
- 姜景璠, 「古典的 島嶼性에 대한 考察」 『濟州大 論文集(13)』 1981
- 金永琪, 「流配文學論」 『現代文學(147)』 1967
- 高柄翊, 「成宗朝 崔溥의 漂流와 漂海錄」 『韓國의 선비文化』 國際文化財團, 1982

- 金耀燮, 「무지개 詩人 秋史」 『文學思想(119)』 1982. 9.
- 金宗業, 「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濟州大學 1979,
- 文燦植, 「流配歌辭의 內容的 考察」 『全南大 語文論集(5)』 1969
- 白大鎮, 「名詩漢詩選」 『現代文學(69)』 1960. 9.
- 徐東鈇, 「流配文學考」 『文湖(1)』 建國大學校 1960
- 成樂熏,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Ⅱ』 高麗大學校 1965
- 安廷煥, 「謫所歌辭研究」 『仁荷大 大學院 碩論』 1981
- 梁重海, 「文化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濟州大學, 1979
- 柳玕善, 「歌辭文學의 作家別 및 內容的 分類攷」 『高麗大 語文論集(11)』, 1968
- 尹貴燮, 「流配歌辭의 兩極」 『同德女大論叢(2)』 1971
- 李丙疇, 「阮堂先生의 經術文章과 歲寒圖」 『東大教育大學院學術 세미나』 1980
- 李相賢, 「絕島流配의 恨」 『文學思想(45)』 1976
- 李熙鳳, 「韓國法制史」 『韓國文化史大系 Ⅱ』 高麗大學校 1965
- 張德順, 「流配歌辭試考」 『國文學通論』 서울: 新丘文化社, 1960
- 鄭炳昱, 「尹孤山論」 『月刊文學』 1969. 7
- _____, 「孤山 尹善道」 『文學思想』 1974. 1
- 丁益燮, 「美人歌辭攷」 『湖南文化研究(1)』 全南大學校 1963
- _____, 「流配文學小考」 『无涯 梁桂東博士 華誕記念論叢』 1964
- 鄭在皓, 「歌辭文學에 나타난 自然觀研究」 『高大 大學院 博士論文』 1977
- 趙東一, 「古典小說과 政治」 『文學과 政治』 서울: 民音社, 1980
- 趙成桓, 「國文學과 謫所關係」 『群山教大 論文集(7)』 1974
- 秦東赫, 「李世輔의 流配時調研究」 『檀國大 論文集(15)』 1981
- _____, 「李世輔의 哲宗朝 現實批判 時調考」 『東方學志(30)』 延世大學校 1982

— Summary —

Chinese Style Poems Written by Exiles in Jeju Island*Yang, Soon Pil*

This exile literature contains the emotional and particularly the mental anguish encountered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se victims' exile. The exile literature of the Chosun-Dynasty express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connected with party and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times.

To understand the exile literature of Jeju-D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rresponding characteristics of the exile literature of the Chosun-Dynast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inese poetry was used a great deal. As high-ranking officials of Chosun-Dynasty based their intellectual tradition and culture on Chinese poetry, it was natural that the banished officials should express their troubles and tribulations Chinese poetry.

The interior Characteristics of the exile Chinese poetry in 100 of the writings of 11 writers including Kim Jung and Lee Ick are classified as follows: 38 are concerned about repentance of individuals, 14 of them express affection for the Kings, 12 are about life in seclusion, 10 express love for nature, 8 are about compassion, 6 concern taste, 4 are nostalgic reminiscences, 1 is a departing lament, 1 retrospection, 1 optimism, 1 entreaty, 2 are transiency, 1 expresses great sorrow and 1 is a lament for the world.

From these examples, exiles Chinese poetry expresses many aspects in its content, as compared to other literature, and again these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1. The deploring of the individual's conditions (entreaty departing lament and great sorrow)
2. Affection for the Kings
3. A life in seclusion (nostalgic reminiscence, retrospection, transiency)
4. Love for nature (taste, optimism)
5. Compassion, lament for the world.

This exile Chinese poetry which has for its subject a life in seclusion and love for nature had a great influence up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iterature of the Sanlim School of Thought.

However even more important is commiseration, and Tasan's Chinese poetry which expressed pity for the inhabitants of Jeju-Do, an island of exile, he relates their humble lives, and the torment by governmental officers. Jeju exile Chinese poetry by Chung On, Kim Chun Taik, Cho Jung Chul are assured to have preceded Tasan in Korean literature history.